

# 한국의 문화 원형

*Cultural Archetype of Korea Guidebook*



## 탈춤, 판소리, 민속의 현대화 10

*The modernization of mask dance, pansori, and folklore*

교수자: 이정재

1차시	도입
2차시	탈춤과 풍자
3차시	판소리의 역사와 유파
4차시	판소리 다섯 마당과 민속 예술의 현대화
5차시	민속의 현대화와 대동 사상, 강좌 총정리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강의개요

주차명	탈춤, 판소리, 민속의 현대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탈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li>■ 판소리의 기원과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li> <li>■ 민속 예술의 현대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한국 민속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li> </ul>	
강의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촬영 <input type="checkbox"/> 대화 촬영 <input type="checkbox"/> 현장 촬영	
강의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막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수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본어)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도입	10주차 강의 개괄
2	탈춤과 풍자	가면극의 지역 명칭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3	판소리의 역사와 유파	판소리의 기원과 탄생 판소리의 유파
4	판소리 다섯 마당과 민속 예술의 현대화	판소리 다섯 마당 종류 민속 예술의 현대화 사례
5	민속의 현대화와 대동 사상, 강좌 총정리	민속놀이의 특징 민속놀이의 종류, 주요 민속놀이 소개 민속놀이의 기능과 의미
학습활동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읽기 자료(pdf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퀴즈 등 연습문제 <input type="checkbox"/> 토론/토의 <input type="checkbox"/> 시연 및 현장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input type="checkbox"/> 개인 과제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영상 자료 시청)	



## 한국어 스크립트 | Korean Script

### 1차시 | 도입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문화 원형’ 10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탈춤과 판소리 그리고 민속놀이의 현대화 그리고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탈춤과 판소리의 어떤 음악적인 그리고 어떤 장르적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그 실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공연을 시청하면서 그 실상이 어떤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술적 특징과 사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장르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민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들이죠. 그 장르의 생성 이유와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이 그것입니다. 조선의 위정자들이 가졌던 안이한 자세는 그들의 이념이었던 유학적 명분론 뒤로 숨는 위선적인 행위였죠. 한반도의 실상을 올바르게 보고자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민중들에 의해 거세게 일어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재무장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역은 무수히 많지만, 단적인 사건을 한 예로 들면 1919년 삼일 독립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선언된 독립 기념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민중들의 정신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과 국가관, 인간관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죠. 1945년 해방이 된 뒤로 한국은 그래도 또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에 직면합니다. 이는 자국은 물론 미, 일, 중, 러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복잡한 국제 관계로 전이되며 남북의 분단이라는 또 다른 비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동쪽은 두 나라로 갈라져서 극한의 대치를, 그것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태죠. 세계 문명사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끄트머리라 하겠습니다.

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이 강좌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에 대해 남과 북의 양분된 모습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충분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죠. 오늘날 소위 전세계적 문화 흐름으로 'K-', 한류라는 것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강을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의의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화 원형적 요소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시 | 탈춤과 풍자

탈춤과 풍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탈춤을 관람을 하셨을 것입니다. 야류와 오광대를 볼 것 같으면 말뚝이는 남성성을 상징하고, 무능한 양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이를 통해서 민중들이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가면극은 지역에 따라 이야기 전개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산대놀이, 황해도에서는 탈춤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낙동강 동쪽은 야류, 낙동강 서쪽은 오광대, 경상북도에서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강원도에는 관노 가면극, 또 함경도에서는 북청 사자놀음으로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가면극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조선 말기 문란했던 계급 구조와 봉건제의 몰락을 여실히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동래 야류 중에서 양반 마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목 더우잡고 방안을 썩 들어가니, 각장장판, 소라 반자, 당음지 굽도리며, 청광화 도벽(塗壁), 희능화 띠 띠고" 등등 중락을 하고요.

장황하게 늘어집니다. 실제로는.

"그 중에 골라 내어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삼석 잔 거더 먹고 취흥이 도도하야, 보기 좋은 산초 병과 경계 좋은 산수병을 좌우로 둘러놓고원앙침(鴛鴦枕) 도도비고 비취금(翡翠衾) 무렵스고 대부인 마누라도 청춘이요, 말뚝이도 청춘이라. 청춘 흥몽이 겨워 두 몸이 한 몸 되야 원갓 수작 놀아시니 그 농락 어떠하리."

그러니까 양반이 "망했네 망했네."

뭔가 벌어진 거죠. 위의 대사는 동래 야류 양반 마당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말뚝이는 상전, 그의 어른인 양반을 교묘한 꾀로 희롱하는데, 언어유희를 통해서 양반의 부인과 말뚝이가 간통을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죠. 계급을 절대적으로 보고, 더구나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했던 조선 사회에서 노비와 양반 부인의 간통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면극에서는 극적 요소와 흥미를 위해 상류층의 성적 문란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특히 민중들은 자신들의 지배 세력인 양반을 적극적으로 모욕함으로써 현실의 불만을 해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민중들이 여기에서 더욱 쾌감을 느끼는 것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유희를 통해서 교묘하게 양반을 희롱하며 드러내기 때문이죠.

또한, 통영 오광대의 풍자탈 마당과 고성 오광대의 오광대 마당에서는 출신 근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부모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오광대는 말쑥드린 것처럼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춤이고요. 통영 오광대는 총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동탈 마당, 풍자탈 마당, 영노탈 마당, 농창탈 마당, 포수탈 마당 등입니다.이 중에 풍자탈 마당은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영 오광대 중에 풍자탈 마당을 잠시 보겠습니다.

말뚝이가 말합니다. "쉬이-. 날이 덩떠부리하야지니 양반 놈의 새끼들이 연당 못에 무자수 새끼

모이듯이, 손골목에 개 새끼 모이듯이 그저 주련이 모아서서, 말뚝인지 쇠뚝인지 개뚝인지, 화삼사월 초파일 날 장안 만호등 달듯이, 과거 장중에 제 의부 애비 부르듯이, 그저 '말뚝아! 말뚝아!' 부른다."

이런 식으로 양반을 비하해 버리죠.

그러니 양반이 "쉬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상놈으로서 양반을 모욕을 하고 살기를 바랄쏘냐!" 하니까

말뚝이가 "하하하! 너희들이 양반이라 자랑을 하니 양반 근본을 들어보자." 하면서 첫째 부터 쪽 들어 봅니다.

다 들어 볼 수는 없고 셋째를 보면, "셋째 양반 널로 두고 말하면, 한 어미에 애비가 둘이로구나. 한쪽은 남양 흥가가 만들었고, 한쪽은 수원 백가가 만들었으니 내가 무슨 양반이라 자랑하며."

양반들이, "예끼! 예끼!".

또 "일곱째 양반 너를 두고 말하면, 네 어미가 보살이라! 보살이가 서방질을 해서 너를 낳았거늘 내가 무슨 양반이라 자랑을 할까! 이놈들!"

여기서 보살은 불교의 승려를 말하는 것이죠. 승려 행(行)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양반이 "이놈, 내가 상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뒤흔을 하다니! 이놈! 그러면 너희 근본을 좀 들어보자." 그리 하니, 말뚝이가 "그리 하여라." 하면서 "나의 근본을 알려 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라! 사대 조, 오대 조, 육대 조, 칠대 조, 팔대 조 이상은 물론하고, 우리 할아버지께옵서는 벼슬이 정일품이요."

전부 벼슬을 했다는 말이죠.

"소년에 등과하여 남병사 오영문도대장으로 계셨으니, 그 근본이 어떠하며!" 등으로 굉장한 내력, '근본'은 내력이죠, 자기 조상.

그래서 "평양감사 지정 받아, 이십사색 마친 후에 흥각궁 황각궁 걸어매고" 등으로 대단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양반의 출생은 비천하거나 상놈보다 못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해도 양반은 이를 올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뚝이의 말장난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민중은 조선의 지배 계층으로 군림하는 양반들의 실상을 사실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이런 것을 고성 오광대에서도 아주 강하게 풍자하고 있다. 고성 오광대의 경우를 보면, 이 가면극은 문동광대 마당, 오광대 마당, 승무 마당, 비비 마당, 제밀주 마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면, 말뚝이가 "양반의 자식들이 혼터에 강아지 새끼 모인 듯이, 연당못에 줄남생이 모인

듯이, 물끼 밑에 송사리 새끼 모인 듯이" 하면서

이렇게 또 비하하면서 쪽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역시 양반은 말뚝이에게 멸시를 당하고, 도령을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등 양반들의 문란한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면극에서 성은 양반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장치로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반의 출생은 간통이나 비천하거나 출신 내력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양반에 대한 적대감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면극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볼 것 같으면, 몇 컷(cut), 동래 야류에서의 말뚝이와 양반들, 저쪽 뒤로 네양반과 원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미 과장으로 양반이 바람을 피워서 첩을 데리고 노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고성 오광대 같은 경우는 중 마당이 나오는데, 승려가 여자를 데리고 노는, 이런 것은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양반을 풍자하기도 하지만 중을 풍자하는 탈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대의 불교문화가 쇠퇴하면서 퇴폐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풍자를 하기도 했고, 조선 시대에 유교가 숭상되면서 불교가 퇴조하면서 드러나는 그러한 퇴폐상을 또 같이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고성 오광대 같은 경우는 비비 마당이 있는데, 저쪽 뒤에 보이는 비비라고 해요. 좀 무섭게 생겼죠. 키가 크고 시커멓게 생겼는데요. 저게 못된 양반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그럴 정도로 민중들의 양반에 대한 혐오감, 적대감을 드러낸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 오광대 할미 마당에서, 상여를 메고, 할미 마당에서 양반이 첩을 데리고 사는데 할미가 오고 그 할미가 싸우다가 죽게 되죠. 그 할미를 상여, 초상이 나서 장례 날 상여를 메고 가는, 오늘날도 저러한 상여가 시골에서는 간혹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여러분들은 학습활동으로 송파 산대놀이, 중요 무형 문화재 제49호로 지정돼있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잘 보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3차시 | 판소리의 역사와 유파

이어서 판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판소리에 대한 음악적인 부분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역사와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판소리 다섯 마당의 주요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역사는 판소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무가 기원설, 육자배기 토리설, 판놀음 기원설, 광대소리 기원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라도 무속을 배경으로 한 무가에서 판소리가 비롯되었다는 설이, 그러나 그중 가장 유력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판소리의 음악적, 문화적 풍습이 전라도의 무속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초기 소리 광대들의 출신이 거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들 중에는 전라도 지방 출신도 많았고요. 그래서 판소리의 기원을 전라도 지방으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판소리를 생성시킨 주도 세력 또한 한강 이남의 시나위권,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도 시나위권의 단골들이 부르는 서사 무가의 연행 형태, 장단, 음조 등에서 판소리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한편 또 그 기원을 화랑 제도에서 판소리의 뿌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잠시 언급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화랑 제도가 과거 제도로 바뀌면서 예능에 능통한 일부 화랑들은 남사당을 조직하여 유랑하기도 하였고, '광대'라는 말 역시 화랑의 방언이기도 하기에 판소리의 근원을 신라의 화랑에 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혼돈과 격변의 시간을 거쳐서 급격히 변화되는 현실적인 불만과 욕구,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족 예술인 판소리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판소리는 본래 18세기 일반 서민들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예술 장르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점차 양반들의 관심과 사랑을 또 받게 되는데, 그러함으로 해서 양반들의 기호에 맞는 내용으로 많이 각색이 되기도 하죠. 양반들은 사설의 운색과 개작에, 고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19세기 후반 고창의 신재효가 널리 전승되고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열두 마당이 있는데 여섯 마당을 다시 묶어서 자료로 전승을 해서 전해주고 있고, 많은 제자 판소리 명창 제자들을 기르기도 했죠.

판소리에는 유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악의 특징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편제의 경우는 통성을 내고 우조 중심으로 돼 있다. 그리고 소리가 웅장하고 힘이 있으며, 발성의 시작이 신중한 데다 구절의 끝마침이 매우 명확하고 상쾌하다. 소리는 자주 붙이지 않고 쪽 퍼면서 계면조 가락을 많이 장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서 이런 동편제의 창법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적벽가>가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편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서편제는 판소리 양대 산맥, 즉 동편제와 같이 양대 산맥인데, 활달하고 우렁찬 동편제와는 대조적으로 가창의 성색이 부드럽고, 구성지고, 애절한 느낌을 줍니다. 소리의 끝도 길게, 딱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길게 끌어서 이어지고 그러한 부침새의 기교도 많고, 계면조를 장식하고 정교하게 부른다. 그래서 이런 서편제의 창법과 잘 어울리는 것은 <심청가>를 들 수가 알겠습니다.

중고제는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전승된 소리로, 중고제는 창법이 동편제와 서편제를 가져다 절충한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좀 동편제에 가깝지만. 반음을 많이 쓰고 음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소리 끝이 동편제 소리처럼 좀 높은 고성이다. 중고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것은 들 수가 없고, <수궁가>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

다.

강산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산제는 서편제가 가지는 애절한 느낌은 좀 지양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점잖은 가풍(歌風)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마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대목은 많이 삭제가 되고 빠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산제의 대표적인 판소리는 역시 심청가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판소리는 그 전승 과정에서 계보에 따라 음악적 특성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제'라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 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양한 판소리를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차시 | 판소리 다섯 마당과 민속 예술의 현대화

판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다섯 마당과 민속 예술의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춘향가>를 볼 텐데요.

그림을 보면 <춘향전>, 고대 소설이죠.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소설로도 되죠. 그 소설의 표지, <춘향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춘향가를 창극화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저 장면은 이몽룡 도령이, 과거에 등제를 하게 되면 저러한 모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춘향이와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춘향가>는 남원에 있는 퇴기 월매의 딸인 성춘향이 남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이별한 뒤 신임 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것에 거절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나타나 구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과 지조에 대한 것이 주제이지만 당시 양반들의 부패와 부조리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정의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는 암시를 주는 작품으로 예술성이 가장 높은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춘향가>는 이야기의 줄거리나 소리의 음악적인 짜임으로 따져볼 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몽룡이 광한루에서 춘향과 만나는 대목. 둘째, 몽룡이 천자 풀이를 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이 사랑가를 부르는 대목까지. 셋째, 그리고 이별하는 대목,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죠. 넷째, 신연맞이 대목에서 춘향이 옥중가를 부르는 대목. 다섯째, 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남원으로 내려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는 대목. 여섯째, 변 사또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데에서 뒤풀이까지. 이렇게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청가>는 사진에서, 고수 한 명과, 창자 한 명, 여성이죠. 딱 둘이서 부르는 판소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자는 저런 동작을 하면서 연기도 하면서 부르기도 하면서,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고수가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빠르기라든지 흥을 돋운다든지 템포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등등입니다. <심청가>는 어린 심청이 눈이 먼 장님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가서, 뱃사람한테 팔려 가서 바닷물에 빠지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왕후가 되고 결국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로 판소리를 짠 것입니다. <심청가>는 부모 자식 간의 지극한 효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불교의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 심청이가 빠졌는데 옥황상제가 구해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과 초현실 세계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 넣고 의미와 보람을 찾아 주는 역할을 이 <심청가>가 하고 있다.

<심청가>의 줄거리는 다섯 부분으로 짜여 있는데요. 첫째는, 심청이 태어나서 심청 어머니가 출산, 돌아가시는 대목까지. 둘째는, 심 봉사가 젖을 동냥하러 다니는 대목부터 몽은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겠다고 하는 대목까지. 눈을 뜨기 위해서. 셋째, 심청이 후원에서 기도하는 대목부터 인당수에 빠져, 팔려서, 빠지는 대목까지. 넷째, 심청이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목에서 왕후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어 탄식하는 대목까지. 그다음에 다섯째는, 심 봉사가 맹인 잔치가 열려서 참여하려고 황성으로 가는 대목부터 눈을 뜨게 되는 대목까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흥보가>의 경우도 여기 그림에서는 남자 한 명과 고수가 이렇게 의상을 갖춰 입고 배경에 병풍을 두르고 공연을 하는 장면이죠. 고수는 대체로 남성이 하고요. 창자는 여성과 남성이 다 있죠. 그

리고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어떤 것은 남성이 위주로 하고, 어떤 것은 여성이 위주로 하는 그러한 약간의 구분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는 않고 있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고수는 남성이고요. 여성이 앉아서 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대체로 들고 부채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동작을 하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하죠.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소리 하나로, 소리와 내용 그리고 그것의 빠르기와 감정 신기를 통해서 군중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러한 간단하면서 아주 복잡한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보가>는 '흥부가'라고도 하고 '박타령'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아우 흥보가 심술궂은 형 놀보에게 쫓겨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쳤 뿔던 후에 이듬해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었는데 그 박을 열어 봤더니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와서 부자가 됐다. 그것을 보고 형인 놀보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박을 가져와서 심어서 뿔더니 그 박속에서 나온 게 금은보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나쁜 무슨 상전이라든지 놀이패, 장수 등에게 혼이 난다고 하는, 똥물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침내 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보가>의 교훈은 삼강오륜 중에서도 장유유서(長幼有序), 윗사람을 높여 주고 위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로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제비와 사람,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초현실 세계의 설정, 이런 것을 보면 인과응보적 불교의 윤리관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권선징악의 전통적 윤리 의식이 강조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궁가> 되겠습니다. <수궁가>에서 대표적으로, 여성 고수가 간혹 있기는 한데 그 사진을 구해서 실어 봤고요.

<수궁가>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다섯 마당이 다 비슷한 장면으로 되어있죠. 아주 단순한 고수와 창자 둘만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수가 없이 창자만, 전체가 아닌 일부를 할 때는 창자만이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판소리 <수궁가>는 병이 든 용왕이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를 시켜서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피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세상으로 살아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건데, '토끼 타령', '별주부 타령', '토별가' 등으로도 불립니다. 유교의 충(忠)과 삼강오륜 중의 오륜의 군신유의(君臣有義)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온갖 술수와 이권에 따라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적벽가>는 중국의 위나라, 한나라, 오나라가 대진한 삼국시대에 조조, 유비, 손권이 서로 싸우며 천하를 호령한다는 내용의 그런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강 싸움을 따로 떼어 와서 만든 것인데요. 판소리 <적벽가>는 적벽 싸움 부분이 그대로 소리로 짜인 것이 아니고, 대목을 중심으로 몇몇 부분을 덧붙이거나 빼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와 줄거리나 문체가 매우 다르다. 임금이나 사대부들은 판소리 가운데에서도 창자의 목청이 당당하고 호령하는 듯 소리를 내질러야 하며 부침새를 잘 구사해야 하는 <적벽가>를 특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명창들이 앞다투어 이 <적벽가>를 불렀죠. 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장수들 간의 의리와 기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상황은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제가 있고 또 양반들의 그런 것들이 공존함을 잘 드러내고 있죠. 양반들은 전쟁을 노래한 <적벽가>를 선호하지만, 민중들의 입장에서 그 고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음을 토로하는 작품이라서 민중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판소리를 간략하게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민속 예술의 현대화, 탈춤과 판소리가 어떻게 현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9주차에 이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9주차 강의에서 우리는 민속놀이가 남과 북에서 어떤 전승과 변화를 유도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속놀이가 가지는 대동성의 정신을 북한에서는 공산당과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해, 왜곡된 대동 정신으로 변질됐다

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는 서구 문명에 문을 열고 개방의 과정을 밟아 오면서 그 대동의 정신을 좀 확장했다고 했죠. 앞서 살펴본 대표 사례인 탈춤과 판소리의 현대적 발전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에 대한 개괄을 잠시 살펴볼 텐데, 마당극, 마당놀이, 창극 이런 것과 관련된 퓨전 음악, 안무, 그러한 계통의 예술, 이러한 것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창극은 넓은 의미에서 판소리와 그것이 서로 나뉘어서 사실극화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판소리가 창자와 고수, 두 사람의 소리를 중심으로 펼치는 음악 위주의 일인극(一人劇)인 것에 비해서 창극은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여러 창자들이 나누어서 맡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고 대사와 연기, 무대 장치 등이 보다 사실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극은 판소리의 극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들을 거리 위주로 바뀐 종합적인 무대 예술인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서양의 뮤지컬을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페라나 오페레타와 비교될 수 있고 그러한 음악, 연극, 무용, 의상, 예능 등이 혼합된 종합 예술이다. 다만 소리와 음악이 서양적인 것이 아니라 판소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페라나 오페레타가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 비롯해서 중세의 농촌 축제와 신비극의 요소, 문예 부흥 시대 유럽 및 여러 나라의 궁정극까지 받아들여 형성된 것처럼 창극도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곁들여져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극의 모체인 동시에 선행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의 경우도 그러한데 판소리는 아주 오랜 옛날에 무속의 의식에서 싹터서 민요라든지 불가(佛歌), 잡가, 민간 전설, 심지어 양반 가사까지 흡수해서 형성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금 서양의 어떠한 것을 흡수해서 종합 예술화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서로 수용하고, 흡수하고, 서로 맞춰서 자기의 독창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창극 <춘향전>의 경우인데, 이몽룡과 춘향이 어머니인 월매 앞에서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당극은 한국 근현대 연극 문화가 지닌 식민주의적 성격과 순수주의적 예술관에 대한 반성을 동력으로 하는 연극 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연극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마당극. 즉 어떠한 무대 장치라든지 어떤 연극적 요소가 없이 그냥 판만 있고, 그 판 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면서 어떠한 연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은 관중의 자기표현 방식과 공통의 사회 인식 등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교섭됨으로써 관중의 집단성과 인식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당극 중에 대표적인 마당 놀이인데, 여기서 보듯이 그냥 판이 있고 연기자들이 나오고 들어가면서, 둘러서 청중들이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이 수평이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판을 벗어나서 청중 속으로도 들어가고 청중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마당극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씽씽 밴드가 되겠습니다. 씽씽은 좀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씽씽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퓨전 국악 음악 그룹입니다. 리더인 장영규의 프로듀싱을 통해서 한국의 민요 특히 경기 민요, 서도 민요 혹은 무속 음악 등의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곡을 만드는 것인데요. 보컬인 이희문은 2014년 국악대상 민요상을 받은 자고, 무형 문화재 57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파격적인 행보를 함으로써 즉 씽씽밴드를 결성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 NPR 같은 경우도 '2017년의 최고의 발견 중 하나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출신의 씽씽은 한국 민속 전통에서 노래와 보컬 스타일을 끌어냈지만, 약간 불손하지만 흥미로운 하이브리드 글램 록(glam rock)이나 디스코(disco)나 사이키델리아(psychedelia) 등으로 변형시켰다.'라고 평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씽씽 밴드는 록 밴드와 함께 화려한 비주얼 스타일과 무대 매너가 어우러진 전통 한국 정통 보컬,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보컬과 록 밴드 플레이를 섞어서 만들었다. 독특한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단히 재미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과 같은 보컬 이희문의 발언은, 매우 융합이라든지 합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특이한데요. 즉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예술에서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개체로써 그는 하나의 성적 정체성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영혼을 모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희문 자체, 자기가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고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남성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잊고, 극복하고 공연에 좀 더 중립적이고 단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매우 시사성이 있는, 융합과 합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날치 밴드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판소리에 현대적인 팝 스타일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음악으로 현재에도 매우 인기를 끌고 있죠. 밴드명인 '이날치'는,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여덟 명 중의 한 사람이 이날치였는데 거기서 따왔습니다. 밴드의 결성이나 음악적 방향에는 2017년 씩씩 밴드를 통한 그러한 흐름과 약간 유사합니다만, 또 멤버도 겹치기도 하고요. 국악과 국악 외 장르의 퓨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 소리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이 잘 뮤지컬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 낸 밴드, 팝 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첨단의 팝과 아주 전통적인 민속, 판소리가 만나서 잘 조화를 이루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절묘한 통합이 무엇이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습활동을 통해서 그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5차시 | 민속의 현대화와 대동 사상, 강좌 총정리

이어서 민속놀이의 현대화와 대동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들에 의해 보존되고 발전된 민속놀이 중 탈춤과 판소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장르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순수한 민중 예술이라는 점인데 이것이 계승되고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앞서 보았듯이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대응했다고 하는 점이기도 하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탈춤과 판소리는 모두 농촌과 무속을 기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일과 대동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무속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간략히 요약해 해보겠습니다. 무속의 핵심 사상은 먼저 주어진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속 굿의 시작이 그렇고 무속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은혜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방자한 인간이 욕심에 끌려 혹은 어리석게 되어서 일을 그르치게 됐을 때 이를 조정해야 할 텐데 그 사회적 장치가 바로 무속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무속서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대동 정신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 신화, 단군 신화의 세계관이면서도 저승과 이승이 같이 공존했었던 그러한 대동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무속은 어떤 경전과 교리가 따로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인간의 행위는 고맙고 감사한 현실에 주어진 삶에 대한 보답으로써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탈춤과 판소리는 무속의 이런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장르의 면면을 볼 때 상층과 양반과 음중과 힘 있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과하고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고, 자연적 순응의 삶을 영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가르침이 주요 주제로 깔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동사상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작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분명하게 더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속은 철학과 종교가 등장한 이래 사실상 미신으로 취급되었고 열등한 신앙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무속 현장에서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고 조악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대의 한국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무속적 원형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창세 신화와 건국 신화, 그 이후의 민간 신앙과 샤머니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무속의 철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지의 문제가 근대기(近代期)에, 앞서 우리는 근대기가 얼마나 급박했었가를 잘 알고 있죠. 근대기 조선의 민중들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민속문화에서 지속되었으며 우리가 앞서 살펴본 탈춤과 판소리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종교의 출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신종교의 출현이 모두 창세 신화와 건국 신화 그리고 무속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은 앞서서 8주차 강의 때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상적인 혼란스러움과 과도기적인 미흡함이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의 과정에서 그 신종교의 마지막에 출현한 원불교는 이를 원만하게 극복한 사상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그 고민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원불교는 1909년 탄생한 박종빈에 의해서 창건되었습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은행(報恩行)을 하는 것이 인생의 요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동성(大同性), 공존, 공영, 더불어 살기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적절한 수행이 필요한데,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 수행이 그것입니다. 즉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고 일심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하는 당연한 본질적 전제와 일치하는 것이죠. 다만, 좀 더 복잡해진 사회 환경에서 좀 강화된 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무속은 열악한 환경에서 존속하기 위해 내면과의 조우 절차로 신관을 설정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수를 받는 형식의 전문적인 것으로 치우쳐 발달을 했죠. 원불교의 경우는 그에 대한 방식을 달리해서,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면서 계, 정, 혜의 삼학 수행의 교리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일제 조선 후기와 근대기는 일제 강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민중들의 사상적 결집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그러한 분위기와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삼일 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어떠한 집약과 정리, 결론을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선언문을 학습활동에서 읽어봤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몇 번 읽어보면 분명한 뜻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선언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상적 바탕 위에 과거의 모순을 풀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언문의 자세는 매우 웅건하고 자신에 차 있으며 어떠한 선형적 확신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세계사적 흐름을 예견하며 거시적 지구 공동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커다랗게 봤을 때 신인합일과 대동 정신의 풀어 씬이다, 라고 일단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대목을 옮겨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생략하고요.

*'늙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딴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지 이미 10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생략하고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아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같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녘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

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양심과 진리, 또 어떠한 조상의 신령과 온 세계의 새로운 형세 이런 것들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그리고 개인과 공동적인 것, 인류 평등의 도의에 따라 정당한 자주적 민족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조선을 핍박한 일본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기보다는 대의를 알아서 좀 행하라 하며 가르치는 형국입니다. 또한, 그들의 만행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앞날을 가꾸고 일구는 데에 집중을 하겠다고도 했죠. 신인합일의 양심과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희망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볼 때 전 세계적 흐름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확실히. 약 100년 전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역사적 오류와 곡절로 인해 주어진 바와 운명을 수용하겠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당연한 도의에 따라 일이 정상화되도록 그러니 함께 노력하자, 바르고 큰 대동의 정신을 같이 실천하자고 말을 강하게 한 것이죠. 당시 독립운동의 선봉이며 기준이기도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은 이 선언문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대 한국의 문화와 관련되어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에 대한 사상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이 선언문의 배경을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 강국 꿈꾼 백범 김구 선생 뜻 깊이 새길 것"이라며 2022년 1월 19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 실린 대통령 후보의 인터뷰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백범 김구선생이 문화예술 분야에 종종 소환되는 것을 본다. <백범일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고 하셨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강세다. 각종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의 기생충,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린 BTS의 버터, 수많은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흥행이나, 예체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스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전하는 봉준호를 보면 틀림없이 기쁘하고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번리전에서 손흥민이 기록한 원더골을 보면, 아마도 함성을 지르고 같은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셨을 거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를 보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문화와 의미가 다르다. <백범일지>에서 전하는 문화의 의미는 '인의, 자비, 사랑'이다. 한없이 주는 마음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고 말씀하셨을 때, 높은 문화의 힘은 영화, 음악, 드라마, TV 예능 포맷 등에서의 수출 성장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고 하셨다. 우리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하셨다."

이 글은 어느 미술 잡지에 실린 최근의 글입니다. 문화와 관련되고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시사적이면서 생동감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 강국의 근본정신은 한류의 성공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와 당시의 독립 운동가들이 생각하는 문화 강국의 진정한 성공은 성과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궁극의 문화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세를 보이는 한류 문화가 그런 흐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인 글이 아닌가 합니다. 삼일 운동의 독립선언문은 이러한, 실천하는 궁극의 문화력, 문화 강국의 진정한 성공을 이미 그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 생활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자의 인의, 불타의 자비, 예수의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는 과도하고 왜곡된 욕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분수에만 맞는 처지에 합당한 역행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인류 구원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이런 김구의 정신은 그대로 삼일 운동의 정신에도 녹아 있습니다. 자신을 해한 일제에 대해 복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대동적 처사와 역행(力行)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것이 진정한 대동 정신이고, 이미 자비이며, 사랑이며, 인의가 아닌가 합니다. 당시는 세계사적 흐름이 민족 자결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인류 문명사는 새 희망의 길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력과 억지와 우격다짐을 잊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였던 것이죠. 민족 공동체의 나아갈 바를 높은 차원의 문화 실천에 두고, 그를 향해 매진할 것을 주문한 김구의 뜻이나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관련된 움직임이 'K-', 한류를 포함해서, 결코 삼일 운동 당시의 문화에 대한 개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그 내력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식과 지혜가 밝아진 오늘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무한한 우주적, 사회적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사실을 먼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혜를 발견하면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해가는 데 주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문명의 세상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열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고, 21세기 문화 흐름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합니다. 평범하다 평범하고 소박하다 소박한 우리 각자는 이런 때에 비로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주차에 창세 신화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창세 신화를 소개하며 신화의 서사를 직접 살펴보고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원리는 무엇인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합일, 천지 합일, 신인합일의 요소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건국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다른 건국 신화도 소개했습니다.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요소와 문화사적인 요소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한국의 건국일인 개천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인합일의 사상은 구체적인 음양오행 사상으로 발전이 됐고, 삼수(三數) 사상으로도 발전이 됐음을 살펴보았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샤머니즘 1'. 샤머니즘의 역사는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무속은 그 연장선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샤머니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사의 샤머니즘의 역사와 철학을 살펴봐야 하겠죠. 재미있는 인류사적 사실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 대한 편견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샤머니즘 2'로 한국의 무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무속은 그 역사가 깊기도 하지만 그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강력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속 조직과 무당 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그 사상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인합일과 음양오행의 바탕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존의 삶을 중심 사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민간 신앙, 가정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간 신앙은 자연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원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가정 신앙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민중들에 의해서 문화적 풍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형태는 한국의 무속과도 깊은 상관성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가정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상성은 뭘지 살펴보았습니다.

6주차 강의 때는 민간 신앙에서 마을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을 신앙은 한국 대부분의 마을에서 오늘날도 행해지는 의례입니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무속과 가정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문화 요소입니다. 무속과도 관계가 있지만, 불교, 유교의 영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을 신앙은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대동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자연스러운 그렇지만 당연한 진실을 몸소 실천하고자 한 문화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주차 강의에서는, 앞서서 원시, 고대 그리고 어떤 민간 그들의, 삼국 시대와 발해 시대 그리고 7주차에는 고려, 8주차에는 조선이 될 텐데요. 고려대(高麗代)의 불교와 팔관회, 연등회, 고려시대가 되면서 한국은 불교의 왕성한 발전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화였던 팔관회와 연등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중 연등회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이 되고 있는 점, 그 보편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불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자기만의 불교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무속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불교와 전통 사상의 습합은 한국의 독특한 불교를 형성했고, 문화적 원형의 작동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인합일과 대동 사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8주차 강의는 유교와 종묘 제례악 및 산대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게 됩니다.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대표적인 행사인 종묘 제례악에 대해서 외적, 내적 문화 요소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철학의 국가였습니다. 그럼으로 얻어지는 강점과 약점이, 그럼으로써 쏟아지는 강약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유교적 흐름 외에 당시 민중들에 의해 주도됐던 산대희도 소개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민속 문화는 이것과 상관성을 가집니다.

9주차 강의는 민속놀이와 민속 예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의 팔관회, 연등회 그리고 조선의 산대희에서 이루어진 가무백희는 조선 후기의 어려움을 딛고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대동의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이므로 민속문화를 대했던 자세가 어떻게 같고 달랐나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민속 전통의 현대적 발전 양상은 무엇이었는데도 언급을 했습니다.

10주차는 탈춤과 판소리 및 현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대기 대표적인 민중의 예술이었던 탈춤과 판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죠. 탈춤의 전국적인 분포와 판소리의 성행은 민중들의 집단 의식을 표출하는 것으로 대동 사회를 위한 하나됨의 진리를 역설한 사례라고 봤습니다. 이 문화적 실체와 그의 정신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도 봤습니다. 'K-', 한류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기도 했죠. 한국의 근대기는 실로 숨 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침략,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끊이지 않던 독립운동, 한국 전쟁과 참혹한 살상, 세계 냉전과 그 열강에 의한 또 한 번의 분단, 이후 등장한 군부 독재 등 이후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근대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적 문화원형은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데지를 민속문화의 지속, 신종교의 출현과 사상, 그리고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통해 문화 원형이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압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드러난 'K-', 한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하고, 강의 시청과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문화원형 총정리 부속-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발

전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례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경제와 정치 및 문화, 사상의 측면 모두에서 두드러지고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것은 모두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화사적 특이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타국을 지배하고 집단 살상했던 경험이 없는 국가입니다. 오히려 타국의 지배를 받으며 고난과 고초를 한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끈질기게 극복해 낸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사악하지 않은 선택을 하였고 치우치지 않는 생활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배우는 자세를 끊임없이 놓지 않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인합일과 대동의 정신을 정립하였고 여유 있는 문화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과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국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으니 소박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촌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므로 개방성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끼리끼리 문화'가 여전히 팽배한 것이 아닌가. 요즘은 세계 국제 여행을 통해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대화에 적응하다 보니 빠른 적응이 필요하였지만, 부조리와 부정, 왜곡에 대한 빠른 믿음은 또 한편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 대응을 위주로 한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남의 사상을 배우다 보니 자기 비하적 자세가 없지 않습니다. 이는 거만함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활달하고 건강함의 문화에 인색하기 쉽습니다.

남북한의 대치는 여전히 민족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이 역시 결국은 민족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외세의 간섭, 미, 중, 러 때문이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한반도의 문제가 풀어지는 시점이 세계 평화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나라 간 이념을 극복하고 세계의 공동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대국들의 합일이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돌이켜 보면 한반도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와 직결돼있는 것이죠. 아울러 한국민들은 이런 세계사적 사명을 안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힘겨운 사명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세계인들의 동참 없이는 또 역시 불가함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얼핏 보기에 어마어마한 난제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른 인간성의 회복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지로 인한 자신의 왜곡된 탐욕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 신화와 건국 신화에서 제시했던 신인합일의 강령과 민속 문화가 보여준 대동정신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원형을 살펴보는 핵심은 그것이 다만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퀴즈

1. 다음 중 판소리 다섯 마당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난봉가
- ② 심청가
- ③ 춘향가
- ④ 흥보가

2. 다음 중 민속 예술의 현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창극은 탈춤에서 발전한 공연 양식이다.
- ② 마당극은 한국에서 발생한 고유의 연극 양식이다.
- ③ 한국의 민속 예술은 서구의 영향을 받으며 현대화했다.
- ④ 최근 전통 음악과 팝을 결합한 퓨전 음악 밴드가 등장해 주목받았다.

## 2. 영상 자료 시청

1) 2차시 수업 관련 영상 자료

동래야류

[https://youtu.be/IJRk\\_L31lgM](https://youtu.be/IJRk_L31lgM)

(영상 38~45분 참고)

고성오광대

<https://youtu.be/aW9IH5jhNfQ>

(영상 19~27분 참고)

(3) 송파산대놀이

[https://youtu.be/Ppa39Y\\_8ZAA](https://youtu.be/Ppa39Y_8ZAA)

2) 4차시 수업 관련 영상 자료



짱짱 밴드

<https://www.youtube.com/watch?v=QLRxO9AmNNo&list=RDQLRxO9AmNNo>

이날치 밴드

<https://www.youtube.com/watch?v=Wtuvs-hqFjU>

### 3. 읽기 자료 열람

5차시 수업 관련 읽기 자료 : 독립 선언문 전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꺾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변명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http://19together100.pa.go.kr/lay1/bbs/S1T29C31/A/3/view.do?article\\_seq=51](http://19together100.pa.go.kr/lay1/bbs/S1T29C31/A/3/view.do?article_seq=51)

10주차 퀴즈 정답

1. ① 난봉가
2. ① 창극은 탈춤에서 발전한 공연 양식이다.

## The modernization of mask dance, pansori, and folklore | *English Script*

###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Hello. Let us begin the lecture of week 10 on Korean cultural archetypes. In this lecture, we will cover talchum, pansori, modernization of folk games, and summarize everything we have learnt so far. Earlier, we looked at the musical elements and the forms of genre regarding talchum and pansori. Now, we will look at the actual contents by watching actual performances and look at what it's really like. We will also look at the artistic features and ideological contents. These are the two genres that were most loved by the people of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We will also look at the reason for the creation of such genres and what the needs of these times were.

Korea faced a great ordeal in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Japanese imperialization. The complacency of Joseon's rulers was a hypocritical act of hiding behind their ideology of Confucian justification. They refused to see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nly focused on protecting their vested interests. There was violent criticism and resistance against them by the people, but it was not enough. However, this was also an era of spiritual rearmament. These things actually happened.

There were countless cases, but a representative example would b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If we look 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reated at the time, we are able to see the spiritual level of the people at the time, their worldview and their view of the state, their view of human beings, and where they were based. After its liberation in 1945, Korea faced yet another tragedy called the Korean War. This translated into a complex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volvi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nd Korea had to experience another misfortune: the divi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Ever since then, people of the same ethnicity have been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are still facing extreme confrontations. This is the last remainder of the Cold War in the history of world civilization.

Under the theme of cultural archetypes, this lecturer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modern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 However, North Korean data is very exclusive and limited, so there is a limit to sufficient review. Today, there is a global trend of something called 'Hallyu', also referred to as 'K-'. In this lecture, we will be looking at its outline, meanings, and significance, and also the types of cultural archetypes it contains.

## The Second Session | Mask dance and satire

Let us look at talchum and satire. You've probably watched talchum performances through the additional learning materials. If we look at Yaryu or Ogwangdae, Malttugi symbolizes masculinity and makes fun of the incompetent aristocrats, which would be an outlet for the crowd. Mask plays have different story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are called Sandaenori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and Talchum in Hwanghae-do province. In Gyeongsang-do province, it is called Yaryu in the east of the Nakdonggang River, and Ogwangdae in the west.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t is called Hahoe Byeolsingut Tallori, and in Gangwon-do province, Gwanno Gamyongeuk. In Hamgyeong-do province, it is called Bukcheong Sajanoreum. Most of these masquerades well-reflect the social image of the late Joseon Dynasty. It can be said that they clearly reveal the chaotic class structure or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fall of the feudal system. Let's look at Yangban Madang, among the Dongnae Yaryu.

*"They entered the room hand in hand, which was decorated with amazing floors, ceiling, and walls that had blue and white flowers"*

It's much longer than that, actually.

*"Drink one from the lot, two, three in a row, feeling tipsy, with beautiful folding screens on both sides" "Lovebird pillows and jade blankets. Both the missus and Malttugi are in their youths" "Among the excitement of youth, the two bodies become one and how pleasurable that would be."*

The husband says, *"I'm screwed, I'm screwed"*, which implies something has happened.

The lines we have just looked at are part of Dongnae Yaryu Yangban Madang. As you can see here, Malttugi plays tricks on his master with verbal play about his wife committing adultery with him.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reveal such adultery between slaves and their masters' wives, considering how seriously Joseon society considered the class system and the integrity of women. However, in the masquerade, the sexual promiscuity of the upper class is deliberately expressed for dramatic elements

and excitement. In particular, the people resolv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yangban, the ruling class, by actively insulting them. It is even more enjoyable for the people because instead of directly showing sexual activity, the play shows the main character cleverly teasing and tricking his master.

Also, in Pungjatal Madang of Tongyeong Ogwangdae, or Ogwangdae Madang of Goseong Ogwangdae, the yangban are satirized through the depiction of how yangban parents are sexually promiscuous. As mentioned previously, Ogwangdae is a talchum in the western part of the Nakdonggang River. The Tongyeong Ogwangdae consists of a total of five madangs, including the mundungtal madang, pungjatal madang, yeongnotal madang, nongchangtal madang, and the posutal madang. Among them, the pungjatal madang is about mocking the yangban.

We will take a look at the pungjatal madang of Tongyeong Ogwangdae.

Malttugi says this: *“Here, here! Since the weather’s hotter, these yangban cunts are gathering like snakes to a pond or dogs to a corner of the road, and they keep calling my name “Malttugi! Malttugi!”*, like they light up lamps during Buddha’s birthday, or as if they’re calling their father on the big exam day. Malttuk, soettuk, gaettuk, whatever.

They belittle the yangban like that.

So when the yangban says *“Here here! Do you want to die? Do you think you can keep your life after insulting a yangban as a slave?”*

Malttugi says *“Hahaha! Since you’re all so proud of being yangban, let me please go through your yangban lineage”*, and starts with the first yangban.

We can’t list them all here, but if we look at the third, *“Third yangban, I see you have one mother but two fathers”. “You are half Namyang Hong, and half Suwon Baek. How are you bragging about your nobility?”*

The yangbans go *“Eek! Eek!”*.

And he says *“The seventh yangban, to speak of you, your mother is a bosal! The bosal gave birth to you through adultery, and you still brag about being a yangban! You fools!”*



Here, bosal is referring to a Buddhist monk. Someone acting as a monk.

So yangban Won says, *“How dare you criticize the roots of the yangban! Let’s discuss your roots then!”*, and Malttugi says *“Let’s do it”*.

*“I’ll tell you my roots, so listen carefully! Four, five, six, seven, eight generations in a row, and my grandfather was a top-rank officer.”*

It means they were all government officials.

*“He passed the exams as a boy and served as a Nambyeongsa Oyeongmundodaejang, but you question my roots!”*. The “roots” are talking about his lineage, or his ancestors.

He continues to brag about how his grandfather *“was designated as auditor of Pyongyang and was decorated with red and yellow bows after his term was finished”*.

Here, the roots of the yangban are represented as inferior to those of slaves. Also, even when Malttugi makes fun of them, the yangban are unaware of the situation and fall for his trickery and wordplay. Through this, the people learn of the reality of the yangban who reign as the ruling class of Joseon and they get feelings of catharsis. Such strong satire can be seen in the Goseong Ogwangdae. The Goseong Ogwandae consists of Mundunggwangdae Madang, Ogwangdae Madang, Seungmu Madang, Bibi Madang, and Jemilju Madang.

If we look here, Malttugi says *“The children of yangban gather like puppies in a field, tortoises in a pond, minnows in water”*,

and he belittles them in his speech. In this way, the promiscuous lives of yangban are expressed by how Malttugi belittles his master and calls his son the son of a whore. Like this, sex is often used in masquerades as a device to criticize yangbans. The roots of a yangban are described as those from adultery, poverty, or unknown, and their authority is thus collapsed. This implicit expression of hostility toward the yangban can

be seen as the resolve of emotions that cannot be expressed in real life.

Let's look at a few photos. We can see the scenes from Dongnae Yaryu with Maltiugi and the yangbans. We can see the four yangbans and yangban Won in the background. This is the halmi gwajang which depicts a yangban cheating and playing with his concubine. In Goseong Ogwangdae, there is a Jung Madang in which monks play with women, which would be against the Buddhist commandments. So, there are talchum satirizing not only yangbans but also monks. Such satire would have been that of the decadent revelations when Buddhist culture declined in the Goryeo Dynasty, or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Confucianism overtook Buddhism.

In Goseong Ogwandae, there is the Bibi Madang. The thing at the back is Bibi. Looks kind of scary. Tall and black. It appears as a creature that eats up all the wicked yangban, which can be said to be an exaggeration of the hatred and hostility of the people towards the yangban. In the Halmi Madang of Goseong Ogwangdae, they are carrying a bier. In the Halmi Madang, the yangban has a concubine, when the grandmother comes and dies fighting. This is a scene of people carrying a bier of the grandmother during her funeral. We can still see such biers in the countryside today. I think it will be fun for you to check out the Songpa Sandaenori, which is designated as the 49th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 The Third Session | History and school of pansori

Let us move on to our discussion on pansori. We have looked at the musical aspects of pansori earlier. Here, we will learn about its history and some characteristics, and the main contents and topics of the five madangs of pansori.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regarding the origin of pansori such as the theory of origin from shamanism, from pannoreum, from gwangdaesori, or the theory of yukjabaegi tori. The most likely one would be the theory that suggests that pansori originated from the shamanic songs from Jeolla-do province. Especially because the musical and cultural customs of pansori is very similar to those of shamanism in Jeolla-do province. Also, many early sori-clowns were originally shamans. Many shamans were from Jeolla-do province. This is another reason why people think the origin of pansori may be from Jeolla-do province. It seems that the main forces that created pansori were the shamans that operated in the sinawi regions below the Hangang River, especially around Jeolla-do province. Even today, we can find major similarities between pansori and the shamanic songs sung by the dangols in the sinawi regions regarding their form, rhythm, pitch, and narrative.

On the other hand, some suggest the origins of pansori from the Hwarang system. This is something I mentioned briefly before. As the Hwarang system changed to the Gwageo system, some Hwarangs who were good at entertainment organized Namsadangs to wander around, and the word 'clown' in Korean used to be a dialect for the Hwarang, which is why some argue the origin of pansori as the Hwarang of Silla. Historically, the 17th century was a time of chaos and upheaval with the Japanese and Manchurian Invasions. It is the general consensus that pansori was created as a new national form of art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rapidly changing complaints and desires. Pansori was originally an art genre that developed independently with the absolute support of ordinary people in the 18th century. So, it started slowly around the early to mid 1700s. However, they gradually started to receive the attention and love of the yangban, which led to many adaptation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Yangbans paid a lot of attention to changing the color and adapting the editorials. In the late 19th century, Shin Jae-hyo of Gochang collected what was being widely passed down. There were twelve madangs, which he reorganized into six madangs and passed on the data. He also raised many disciples of pansori.

There is something called a yupa in pansori. It refers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First, in the case of dongpyeonje, they use a common voice centered around ujo. The sound is magnificent and powerful, the beginning of the vocalization is careful, and the end of the phrases are very clear and refreshing. The sounds aren't connected too often and the gyemyeonjo garak are not that decorated. Among the five madangs of pansori, the song that best matches the dongpyeonje's method of singing would be 'Jeokbyeokga', which is a song about war.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seopyeonje. Seopyeonje and dongpyeonje are the two major branches of pansori, and unlike dongpyeonje which is relatively lively and loud, it is soft, composed, and mournful. The ends of the sound are long, instead of being broken. There are many techniques of such buchimsae and the gyemyeonjo is very decorated and elaborated. A song that goes well with the singing method of seopyeonje would be <Simcheongga>.

Junggoje is a sori that is transmitted to southern Gyeonggi-do province and Chungcheong-do province. Junggoje is basically a compromise between dongpyeonje and seopyeonje, although it is a bit more like dongpyeonje. It uses a lot of half-tone and the pitch rises step by step, so the end of the sori is quite high like that of dongpyeonje. There is no special example that corresponds to junggoje; perhaps <Sugungga>.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gangsanje. Gangsanje is characterized by avoiding the mournful feeling of seopyeonje while creating a gentle atmosphere as much as possible. This is most likely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This can also be seen by how a lot of the content that goes against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 principle of Confucianism was deleted. The representative pansori of gangsanje would be Simcheongga. Pansori differs in mus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ts origins, which is called 'je'. Such things discussed above can be generally said to be 'je', which you can understand as a concept to distinguish between the various types of pansori.

## The Forth Session | the five pansori yards and the modernization of folk art

Let us look at pansori. The title for this part will be “The Five Madangs of Pansori and the Modernization of Folk Art”. First, we will be looking at <Chunhyangga>.

This is a photo of <Chunhyangjeon>, an ancient novel. The pansori <Chunhyangga> is also a novel. This is the cover page of the novel, <Chunhyangjeon>. This is a dramatic version of Chunhyangga, where Lee Mong-ryong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the hat that is worn when someone passes the national exam. So this is the scene where he meets Chunhyang. <Chunhyangga> is a story about Seong Chunhyang, the daughter of Toegi Wolmae in Namwon, who originally vowed to marry Lee Mongryong, the son of the commander of Namwon, but breaks up with him. She is imprisoned because she refused the request of the new lord to be his mistress, but Mongryong, who became a secret royal inspector after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s, returns to save her. This is the story of the pansori. The main theme is about the love and support between a man and woman, but it contains a lot of accusation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of the yangbans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it also suggests how justice is still alive, so this would be a pansori of high artistic quality.

<Chunhyangga> can be divided into six parts based on the plot of the story and the musical compositions. First, the scene where Mongryong meets Chunhyang at Gwanghallu. Second, from the scene where Mongryong solves the thousand characters to where the couple sing a love song. Third, the scene where they part because Mongryong has to go to Hanyang to take the national exam. Fourth, when Chunhyang sings the okjunga during New Year’s Eve. Fifth, when Mongryong passes the national examinations, returns to Namwon, and meets Chunhyang who is imprisoned. Sixth, the afterparty of where the birthday party of Lord Byun was. This is how it can be divided into six parts.

If we look at this photo of <Simcheongga>, there is one drummer and one female singer. This would be a typical scene of pansori where two people sing together. The singer sings and acts, making movements like that, while the drummer keeps the rhythm consistent and plays an important part. Changing the speed, getting people excited, moderating the tempo, etc. <Simcheongga> is a story about young Simcheong being sold to a sailor for 300 bags of rice as offerings to open the eyes of her blind father, taken out into the ocean, and thrown into the sea. However, with the help of the Jade Emperor, she comes back into the world, becomes a queen, and eventually opens the eyes of her father. That’s the story of this pansori. <Simcheongga> is not only based on the filial pie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ut is also based on the Buddhist law of causation. In the story, Simcheong crosses reality and surreality by dying at the bottom of the ocean and being revived by the Jade Emperor. So there is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surreality. <Simcheongga> plays a role to inspire and give hope to the lives of people.

The plot of <Simcheongga> is composed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is from when Simcheong is born and her mother dies while giving birth. Second, from when Simcheong's blind father goes around begging people to breastfeed his daughter, to the part where Simcheong sells herself for 300 bags of rice to a monk in Mongeunsa Temple to open her father's eyes. Third, from when Simcheong starts praying to when she is thrown into the ocean. Fourth, from when Simcheong enters the palace of the Jade Emperor, to when she is devastated because there is no way for her to become a queen and meet her father. Fifth, from when Simcheong's father goes to Hwangseong to participate in a party for blind people, to when his eyes are opened. This is how it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is is a photo of <Heungboga>, in which a male singer and drummer wear costumes like this and perform in front of a folding screen in the background. The drummers are usually male. But there are both male and female singers. And among the five madangs of pansori, there are some distinctions, with some of them centered on men, and others on women. It is not distinguished in principle. In this photo, you can see the drummer is male. The woman sits down or sometimes stands up, and opens and closes her fan to convey emotions in her movements throughout the performance. The content is very simple - just sound. With just sound, a plot, and its speed and the conveyance of emotions, it is a very simple, yet complicated and comprehensive art that can make people cry and laugh.

<Heungboga> is also referred to as 'Heungbuga', or 'Baktaryeong'. Heungbo, a kind-hearted man, was kicked out by his mean older brother, Nolbo, and was living in poverty. Heungbo fixed the leg of an injured swallow, and it brought back a gourd seed the year after, which he planted, only to find out that the gourd was filled with all kinds of treasures that made him rich. After seeing that, his older brother Nolbo broke a swallow's leg on purpose, and planted a gourd seed himself. However, what came out of the gourd was not treasure but horrible things such as mean, loud, strong men, or human excrement. So he regrets his sins and becomes a better man. Therefore, the main lesson of <Heungboga> is to respect elders, which is a part of the Confucian teachings of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However, it can also be said that the main theme is brotherhood between two brothers. But that's not the case in reality. If you look here as well, things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wallow and the two brothers, or between animals and men, and the setting of a surreal world from that relationship, all reveal the ethics of causal retribution in Buddhism. Also, we can see how it emphasizes the traditional didactic ethical consciousness.

This would be <Sugungga>. There are occasionally female drummers, which is what we can see in this photo of <Sugungga>.

This is a scene from <Suggungga>. If you see here, all scenes of the five madangs look very similar. The format is extremely simple, with just a drummer and a singer. Sometimes, when only a part of a performance needs to be performed instead of the whole thing, a singer can perform alone without a drummer. The pansori <Sugungga> is a story about the Dragon King of the ocean sending a turtle to bring back a rabbit

from the land, after hearing its liver might help to cure his sickness. However, the rabbit manages to trick the Dragon King and flees back to the world. This is the story of the pansori,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Tokki Taryeong’, ‘Byeoljubu Taryeong’, or ‘Tobyeolga’. Although the theme is about loyalty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which is a part of the Fiv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the story is actually a satirical depiction of how the real world is nothing like that, but instead is filled with trickery and personal interests.

<Jeokbyeokga> is derived from the Chinese novel,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which is about how Cao Cao, Lui Bei, and Sun Kwon fought each other and commanded the worl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in which the Wei, Han, and Wu Dynastie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more specific, it is about the battle of Jeokbyeokgang in the novel. The pansori <Jeokbyeokga> is not simply singing a section of the novel word-for-word, but is made by adding or subtracting parts around the main conversations in the section. Therefore, the plot and style of writing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novel. Kings or noblemen especially enjoyed <Jeokbyeokga>, because it requires its singers to sing in a confident and commandeering tone, and use the buchimsae very effectively. So many great singers were all eager to sing <Jeokbyeokga>. It is about war, and the loyalty and wit between the generals. Yet, it also shows many problems in life, the yangban needs to go through. The yangban prefer <Jeokbyeokga> because it is about war, while the people also enjoy it because it is a work of art that expresses hardships of life beyond words.

So we briefly talked about pansori up to here. I mentioned how we will continue our discussion from week nine regarding the modernization of folk art, and how talchum and pansori are being modernized. In our lecture from week nine, we looked at how folk games led to certain transmissions and changes in South and North Korea. We have looked at how the spirit of daedong was distorted and modified as a tool to maintain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had expanded the spirit of daedong by opening its doors to Western civilization. We will move on to discuss the modern developments of talchum and pansori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as we have looked at earlier. Let’s take a quick overview of this. Madanggeuk, Madangnori, Changgeuk, fusion music, choreography, art of that line, etc. We can see how it is expanding in a variety of ways, and we’ll be looking at the representative ones.

Changgeuk, in a broad sense, is a separated branch from pansori which is much more realistic. Unlike pansori, which is a one-man play centered on the music of the singer and dancer, changgeuk is a comprehensive stage art in which different singers represent the many different characters in a play, and have much more realistic lines, acting, and stage devices. Changgeuk is a comprehensive stage art that highlights the dramatic nature of pansori, which you can compare to the musicals of the West. We can compare it to the opera or operetta. Like these, it is a comprehensive art involving music, theater, dance, costumes, and entertainment. However, the sound and music was that of pansori, instead of those of the West. Just like how opera or operetta originated

from ancient Greece and England, but was also influenced by medieval rural festivals, mystical elements, court plays in Europe, and the Renaissance, changgeuk was also form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elements throughout its long history. The same could be said about the pansori, which was the original form, or basis of the changgeuk. Pansori started out as a shamanic ritual a long time ago, but was formed by absorbing folk songs, Buddhist songs, jangga, folk legends, and even aristocratic lyrics. And on top of that, Western influence was also added to create this comprehensive art form. In a way,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embracing, absorbing, and combining many other things to express one's unique originality.

This is a photo of a scene of a changgeuk performance of <Chunhyangjeon>, where Chunhyang and Lee Mongryong first meet each other in front of Wolmae, Chunhyang's mother.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a madanggeuk. Madang Theater has a strong identity of theatrical movement, which is driven by the self-reflection of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Korean theater culture such as colonial characteristics and purist views of art. This is the only theater style that occurred naturally in Korea,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theater. You cannot see this anywhere else in the world. Madanggeuk. There is no stage equipment nor theatrical elements. There is just a stage where people come on, act, and leave. Therefore, by actively negotiating between the audience's way of self-expression and the common social awareness of society, it strengthens the collectivity and awareness of the audience. You can understand it like this. Madangnori is a typical form of madanggeuk, and as you can see in this photo, there is just a stage where actors enter and leave, with the audience sitting around it to watch. But because the stage is horizontal, the actors can leave the stage to join the audience, or even invite some audiences to the stage. This ambiguity of boundary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madanggeuk.

Next, we will look at the band, Ssing Ssing. It might be a bit unfamiliar, but Ssing Ssing is the name of a Korean band that plays fusion music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ts leader, Jang Yeoung-gyu, makes song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folk songs of Gyeonggi-do province, or the northwestern provinces of Korea, or shamanic songs. Lee Hui-mun, the vocalist, won the award for best folk song in the 2014 KBS Korean Traditional Music Award, and is also the 57th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This man made an extraordinary move to form the band, Ssing Ssing, and attracted global attention. NPR mentioned that the band was 'one of the best discoveries of 2017'. The New York Times said "Ssing Ssing from Korea drew their vocal styles from Korean folk traditions, which was transformed into slightly insolent but interesting hybrid glam rock, disco, or psychedelia". Ssing Ssing combines traditional Korean vocals with a rock band with colorful visual styles and stage manners. It is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vocals and rock band play. It is a unique form of art. You can check out a video of them.

I think you would enjoy watching it. The following remarks from the vocalist, Lee Hui-mun, are very unique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or unity. He said, "In

Korean traditional art, the baksu, is a male shaman who has the body of a human male. But as a medium, he requires more than one sexual identity”. He needs to become a woman as well. “Because they convey both male and female souls.” Lee Hui-mun, himself, forgets that he is a male singer when he is acting and singing as a female character. and does his best to make the performance more neutral and unisex. This is very suggestive in that, it shows what convergence and unity is all about.

Now, we'll talk about another band, Inalchi. Their music that harmonizes traditional pansori with modern pop is very popular today. The band name 'Inalchi', is derived from one of the eight great pansori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I Nal-chi. The band's formation and musical direction is quite similar to that of Ssing Ssing in 2017. They also have overlapping members. These singers were also interested in the fusion of traditional music and other genres. And their pop band is the result of their well-made musical combination. It shows the exquisite integration and harmony of modern pop and traditional folk pansori. You can check them out through the additional learning material.

## The Fifth Session | Modernization of Folklore, Daedong ideology(the Great Harmony), and Seminar Summary

Next, we will summarize the modernization of folk games and daedong ideology. Among the folk cultures that have been preserved and developed by the people, we have looked at talchum and pansori as representative examples. What is special about these two genres is that they're pure folk art and are very suggestive to us in how they have been transmitted and developed throughout time. As we have looked at earlier, another significance is how the two Koreas responded differently to this. As we saw, talchum and pansori are both based on agricultural and shamanic culture. They also reveal the concepts of unity and daedong. Let's quickly summarize what the core principles of shamanism were. The core idea of shamanism begins with knowing to appreciate the given things in life. That's the beginning of the shamanic gut, and that's the spirit of shamanism. However, despite such grace given to them, when humans make mistakes by being greedy or foolish, the social device used to fix the issue was shamanism. However, shamanism is characterized by how it requires the help of Gods. So this would also fall in the context of the spirit of daedong. In this way, it is the worldview of the Genesis or Dangun mythologies which we looked at in our first lecture, and how the real world and the underworld coexisted - which is a concept of daedong.

Shamanism has no scripture or doctrin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you can gain knowledge if you keep asking the questions to your deep unconscious. In other words, it is wishing for a life that rewards human behavior that is grateful for the given reality. And specific issues are solved by looking deep inside yourself. It's very simple.

Talchum and pansori are based on this spirit of shamanism. In fact, when you look at the two genres, the main theme is to give up the excessive and foolish desires displayed by the upper class, or yangban, or those in power, and accept the way of life as it is and conform to nature. This is where the ideology of daedong is identified. This would be more clearly revealed when each work is analyzed in detail. Since the introduction of philosophy and religion, shamanism has been treated as nothing more than a superstition and an inferior form of faith. Generally speaking, the perception of shamanism is very negative. And this aspect is actually visible in scenes of shamanism. This is most likely because it was neglected for such a long time in a poor environment. However, modern Korea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is matter. In other words, the country thought about how the archetype and originality of shamanism could be highlighted again.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Genesis and founding mythologies, and the folk beliefs and shamanism that came after. As we saw earlier, the core of the philosophy of shamanism is something very natural and reasonable. There wa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original purpose could be revived, but we know how urgent the modern era of Korea was. The people of the modern era in the Joseon Dynasty asked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original purpose could be brought back.

This process was continued in folk culture, and the typical examples of this are the talchum and pansori that we looked at earlier.

On the other hand, this also led to the emergence of new religions. In the lecture from week eight, we discussed how the emergence of new religions is all based on the Genesis and founding mythologies, and shamanic ideologies. But during that process, it was evident that there was a sense of confusion and transitional inadequacy. However, Won Buddhism, which was the last of the new religions during these hard times, became an ideology that overcomes these obstacles smoothly, and eventually ended such concerns.

Won Buddhism was founded by Park Jung-bin, who was born in 1919. The doctrine of this religion suggests that the essence of life is to discover grace in life and pay back correspondingly. In other words, it is a different expression of the concept of daedong, or co-existence, or co-prosperity. And appropriate training is necessary to do this, which involves the study of three disciplines- Gye, Jeong, and Hye. They basically involve not letting the mind be distracted and instead, gathering it as on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natural, essential premise of shamanism that suggests one should face one's inner self. However, it is slightly different because it requires harder training in a more complex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survive in poor conditions, shamanism was developed to become a professional form of receiving spirits by communicating with a singwan as a process of encountering the inner self. In the case of Won Buddhism, it is done slightly differently, and is more generalized by replacing it with the doctrine of the practice of the three disciplines of Gye, Jeong, and Hye. Anyway, the late colonial Joseon Dynasty and the modern era of Korea was a time when a lot of people gathered ideologically due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is one example where you can see the atmosphere and scenes of this period. This i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taining its spirit would be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all the things we have just looked at.

You have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 additional learning material. Although it may be a little difficult, the message would be clear if you read it a few times. This declaration contains a lot of content. Overall, it is written to solve the contradictions of the past and practical problems on an ideological basis. The posture of the declaration is very solemn and confident, and also displays a transcendental conviction. It also predicts the trend of world history and maintains a view of the macroscopic community of the Earth. Largely speaking,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ression of the ideologies of sininhabil and daedong. This is a quote from the declaration:

*"We hereby declare that Joseon is an independent nation and that the people of Joseon are ethnically independent. We are making this clear to the world for the great cause of human equality, which will enlighten the generations to come and let them forever enjoy the rights to their own independent survival."*

Let's skip a bit.

*"It ha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we were victimized by aggression, a relic of old age, and suffered from oppression of another n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ousands of years. How much have we lost our rights of life, were hampered of mental development, suffered damage to the dignity and honor of our people, and lost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global culture with our new, sharp, and original ingenuity?"*

Skipping a bit. *"Our intention is not to scold Japan for its lack of loyalty to our long-standing social foundations and the quality of our people. Busy flogging and encouraging ourselves, we have no time to blame others. Urgent to recover from the current situation, we have no time to punish old things and make mistakes. The mission given to us today is only self-construction, and not to chase or defeat others with old resentment and temporary emotions. Alas, a new world is in front of us. The age of force has gone, the age of morality has come. The humanitarian spirit that has been honed, cultivated and nurtured in the past century has just begun to shine the bright light of a new civilization on human history. We stand up to this. Conscience is with us, and the truth is with us.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actively rise from their dark and confined old nests and achieve a happy and pleasant resurrection with nature. Although we can't see them, the spirits of our ancestors are helping us, and the new situations around the world are protecting us from the outside. The beginning is a success in itself."*

It is talking about things like conscience, truth, spirit of ancestors, and the new situations around the world. It strongly emphasizes that Joseon is a legitimate, independent nation based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dividual and communal factors, and the morality of human equality. It also takes the stance of teaching Japan to be loyal, instead of expressing resentment for persecuting Joseon. It also mentions how they would focus on building their own future instead of wasting time blaming Japan for their atrocities. It also declares hope full of confidence about the conscience of sininhabil and truth, and that it is the irresistible trend of world history. Today, the global trend is certainly going in that direction. It is true that today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ings were about 100 years ago. It is a strong expression of how people would not accept such historical errors and obstacles as fate but would correct them going forward. It also involves the idea that everyone should work together so that things can be normalized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so that people can practice the spirit of daedong. The ideology of Kim Koo, who was the vanguard and standard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t the time,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is declaration.

There is an article about Kim Koo's vision about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which can be linked to modern Korean culture. So let's take this opportunity and use this to better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is declaration. His article starts by saying "We must deeply carve in stone the ideas of Kim Koo, who dreamed of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This is also the title of an interview article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newspaper 'Seoul Culture Today', on January 19th, 2022. This is what the article says:

*"We can see Kim Koo, a former independence activist, often summoned to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Baekbeomilji>, he said, 'All I truly wish for is the power of high culture', and, 'It is my wish that our country has the power of high culture'.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very strong today. <Parasite> by Bong Jun-ho, which swept up various awards, 'Butter' by BTS, which topped the Billboard's main single chart, and 'Squid Game' on Netflix which topped the view ratings in many countries. A thought comes to mind: 'If Kim Koo was alive, what would he think when he saw the success of Korean culture and Korean stars in arts and sports?' He definitely would have been happy and proud to see Bong Jun-ho on the stage of the Academy Awards delivering his acceptance speech. If he knew about Son Heung-min's amazing goals in Tottenham against Burnley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he would have probably screamed and re-watched the same video multiple times. But would he think that his 'wish' had come true because the Korean cultural content market has grown, and Koreans are excelling in arts and sports? The culture that Kim Koo mentioned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culture we understand today. The meaning of culture conveyed in <Baekbeomilji> is 'humanity, mercy, and love'. A heart that gives endlessly. When he said, "It is my wish that our country has the power of high culture", he wasn't talking about export growth in movies, music, dramas, TV entertainment, etc. He said it is "making ourselves happy, and also giving happiness to others". He hoped that we would become the source of a high and new culture and set an example for the world."*

This is a recent article published in an art magazine. It is very suggestive and lively because it is related to culture and was published very close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article mainly deals with the Korean Wave, which we know very well about. However, it also emphasizes that the fundamental spirit of being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must not be deemed complete with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The true success of being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that Kim Koo and the independence activists at the time imagined lies not in achievement, but in the practice of love. That's where the ultimate power of culture lies.

I think this was written in the hope that the currently strong Korean Wave culture

would take such a cours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an be evaluated to have anticipated this true success of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and the ultimate, active cultural power. It is enough to check the grace you have received and live a grateful life. That would be the humanity of Confucius, mercy of Buddah, and love of Jesus. There is no place for excessive and distorted desires.

It is not difficult to work for something that one deserves to have. That is where the hope and future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lies. This spirit of Kim Koo is also incorporated into the spirit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ocusing on his practice of daedong and actions, instead of avenging the Japanese Imperialism that harmed him --that would be the true spirit of daedong, mercy, love, and loyalty. At the time,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the trend in world history.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was predicting a new path of hope. He said that we should forget the forcefulness and irrationality of the past. He made a precise diagnosis of the advent of a new world. Kim Koo's will to put the path of the national community towards focusing on a high-level of culture-- which was the concept of culture dur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is not at all different from the 'K-something', or the Korean Wave. But on the other hand, such unconditional love and mercy is neither easy nor desirable. We must understand the history first.

But this isn't really that difficult when there is so much more knowledge and wisdom available today. We actually live with infinite cosmic and social benefits. We must be able to accept this fact first. When you find grace, you have no choice but to focus on living within your own capabilities. For this to happen, we must encourage and acknowledge each other. This would be an ideal world of beautiful civilizations. This openness is the way to become a true global cultural powerhouse and is what the cultural trend of the 21st century demands. Each of us, who are ordinary, simple, and humble, can only have a high cultural power at such times. We can truly be heroes in modern society.

Let us concisely summarize all we have learnt so far. In week one, we covered the Genesis mythology. I introduced the Genesis mythology of Korea, looked at its narrative, and the ideological principles behind it. I explained that the crucial elements were the unity within nature,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between God and man.

In week two, we looked at the founding mythologies. We have looked at the contents of Dangun mythology, a representative founding myth, and also introduced other founding myths. We have looked at bo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contained in the myth. This is because they are related to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So we could not skip the discussion of historical elements. Here, we looked at how the ideology of sininhabil was developed into a more concrete idea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and also the samsu ideology.

The lecture of the third week was 'Shamanism 1'. The history of shamanism is very extensive. Korean shamanism is only a part of i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shamanism correctly, we must also study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hamanism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 think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observe interesting facts about the history of mankind. And I hope it was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ejudice against shamanism.

Week four was 'Shamanism 2', in which we looked at Korean shamanism in more detail. Korean shamanism has a long history but is characterized by its well-maintained archetype. And its influence is still very strong today. Korea is also a country with the best, and most shamanic organizations and shamans, in the world. We looked at the reasons why this culture became deeply rooted in Korea, and where the ideological basis for this was. We were able to see how its central ideology was that of natural coexistence on the basis of *sininhabil*, and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week five, we looked at folk beliefs and family beliefs. Folk beliefs are also called natural beliefs. It is an indication of how it is archetypical. Family beliefs are still alive today as a cultural custom among the people. And this form of faith is deeply related to Korean shamanism. We've looked at specific family beliefs, their forms, and their ideological nature.

In week six, we focused specifically on village beliefs, among folk beliefs. Village beliefs are rituals that are still practiced today in most villages in Korea. This is also a cultural element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shamanism and family beliefs that we have discussed earlier. It is related to shamanism, bu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nfluenc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natural and obvious truth that village beliefs work towards in order to achieve a harmonious society of *daedong*, is a cultural tradition and people intend to practice this.

In week seven, we looked at the Goryeo Dynasty as a continuation of how we looked at the lives of people in the primitive and ancient ages, an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Balhae Kingdom. Week eight was about the Joseon Dynasty. *Palgwanhoe* and *Yeondeunghoe* of the Goryeo Dynasty. Korea experienced vigorous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during the Goryeo Dynasty. We have looked at *Palgwanhoe* and *Yeondeunghoe* as its representative cultures. We have specifically looked at the universal meaning of *Yeondeunghoe*, which has been designated and transmit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Asset. In addition, we have looked at how Korean Buddhism is unique, unlike Buddhism of other countries, and how this was naturally due to the influence of shamanism. The fusion of Buddhism and traditional ideologies formed the unique style of Korean Buddhism and served as an example of cultural prototypes in action. It was decided that it was a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ideologies of *sininhabil* and *daedong*.

Week eight was about Confucianism, *Jongmyo Jeryeak*, and *Sandaehui*. In the Joseon Dynasty, Buddhism was suppressed, and Confucianism was revered. We learned about *Jongmyo Jeryeak*, a representative event based on Confucian ideologies, its external and internal cultural elements and procedures. Joseon was a country of strict philosophy. We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btained by doing so. Other than this Confucian trend, I also introduced *Sandaehui*, which was led by the people at the time. Most of the folk culture that remains in Korea today is related to this.

In week nine, we looked at folk games and folk art. Gamubaekui, which originated from Palgwanhoe and Yeondeunghoe of Goryeo and Sandaehui from Joseon, survived the difficulti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s transmitted to this day. We have looked at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I have also explained the spirit of daedong within. Moreover, since Korea is a divided country, we looked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ttitudes towards folk culture. We also mentioned what the direction of the modern development of folk traditions was in Korea.

Week 10 was about talchum, pansori, and modern culture. We looked at the details of talchum and pansori, which were representative folk art of the modern era.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talchum and the prevalence of pansori were seen as examples of the expression of the truth of unity for daedong, through expressing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e've also seen what changes this cultural entity and its spirit went through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period. We've looked at how this led to 'K-' or the Korean Wave. The modern period of Korea was a series of truly breathtaking moments.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36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and unrelenting independence movements, the Korean war and its devastating killings,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Korea by its powers,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democratic movement. Truly a turbulent modern period. In that process, we have looked at what Korean cultural archetypes were chosen and what their specific contents were, the continuation of folk culture, the emergence and ideologies of new religions, and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 also mentioned how we should view the modern emergence of 'K-', or the Korean Wave.

I hope you had a fun and meaningful tim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choosing and watching my lectures. In addition, let's briefly look at 'Summary of Korean cultural Archetypes - Problem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veryone knows that Korea's recent development is an unprecedented case in world history. It's no coincidence that we have been outstanding in multiple areas including economy, politics, culture, and ideologies. Moreover, we can mention the following cultural and historical peculiarities. Korea has no experience of dominating or mass-murdering in other countries. Rather, it experienced endless hardships under the control of other countries. It also has a history of persistently overcoming them. It made choices that were not evil and maintained a non-biased lifestyle. And another positive aspect is that it also never let go of the attitude of learning. And it established the right spirit of sininhabil and daedong, and created a relaxed culture.

However, there cannot be no shortcomings at all. It has never built an empire before, so it's humble, simple, or one could even say tacky. It is a small country located on the periphery of the world, so there is still a lack of openness. That's why our culture is still very exclusive. These days, this is gradually easing through international travels around the world. The quick adaptation to modernization was necessary, but the downsides include quickly forgetting irrationality, corruption, and distortion. In other words, disadvantages that happened because it focused more on short-term responses rather than long-term ones. Because of having to learn the ideology of others for so

long, there is also a self-deprecating attitude. It is beneficial in that it suppresses arrogance, but it is easy to be stingy towards a culture of liveliness and health.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still a challenge for our people to solve. This is because, after all, it was a decision of our people. We cannot entirely blame this on foreign interference of the US, China, and Russia. We must show our ability to take initiative in solving problems. There is a widespread opinion that, when the problem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solved, it will be the beginning of world peace. This is because it can only be achieved if the big nations overcome the difference in their ideologies and work in unity for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world.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the problem of one country. It is directly related to all our problems. So Korean people are a people with this mission for world history. We must think about how to solve this difficult mission, but it is also true that it would never be possible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These problems may seem like huge challenges at a glance. But I don't think that's necessarily the case. Because in the end, it's about restoring humanity. It can be solved quickly if one could see one's distorted greed due to ignorance. I believ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solution to how quickly human beings recover their original form. And this answer is already given in the platform of *sininhabil* presented in the Genesis and founding mythologies, and the grand spirit of *daedong* shown by folk culture. I want to believe, and I do believe that there are active effort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or this recovery. Therefore, the key to looking at Korean cultural archetypes is not just limited within Korea. That's how I see it.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lecture.

## 假面戏、盘索里、民俗的现代化 | Chinese Script

### 第一节课 | 导入

大家好，现在开始为大家讲解第十周‘韩国的文化原型’。在这一讲中，我们将了解假面戏与盘索里和民俗游戏的现代化进程以及对总体内容的回顾。前面我们学习了假面戏与盘索里的各种形式上的特征。今天将会通过具体内容和观看演出视频进一步了解其真实面貌。另外还会了解其艺术性特征和思想性内容。这两种体裁从中世纪到近代为止，一直受到民众的喜爱。我们会学习其形式产生的根源和时代性需求。

韩国在近代化进程中，经历了巨大的磨难。那就是日本的殖民统治。朝鲜统治者的安逸态度可以说是隐藏在所谓的儒家大义名分下的虚伪行为。这是因为他们漠视韩半岛的现实，而热衷于捍卫自己的既得利益。因此掀起了民众对统治阶层的抵制热潮，但这远远不够。然而这同时也是一个让人们有机会在精神上重新武装自己的时刻。事实上的确发生了这样的改变。

历史上曾有过无数这样的瞬间，其中一个典型的例子是1919年的三一独立运动。我们从当时签署的独立宣言纪念文里面，可以从侧面了解当时民众的精神水平。我们可以了解到他们的世界观、国家观、人类观，以及这些观念是基于何种根据的。自1945年解放以来，韩国依然要面对朝鲜战争这样的悲剧。这场战争除了本国之外，还牵涉到美、日、中、俄复杂的国际利益关系，由此而导致的另一个悲剧就是南北分裂。自此同一个民族被分为两个国家，并开启了极端对峙的时代。这是世界文明史上的最后一场冷战。

本讲座以“文化原型”为主题，同时也会探讨在传统文化的现代化传承中体现出来的南北分裂情况。然而，由于朝鲜的封闭使得资料非常有限，因此也留下了无法充分探讨的遗憾。今天，“K-文化”，也就是韩流，已经成为全球的文化潮流。在这一讲中，我们将大体了解其含义和意义，以及其具有哪些文化原型元素。

## 第二节课 | 假面戏和讽刺戏

下面我们来了解一下假面戏和讽刺戏.大家已经通过学习活动观看了假面戏的表演.野游与五广大中的打木桩象征着男性特征,通过对无能两班的戏弄与嘲弄为观众带来报仇的快感.假面戏在故事发展与特征上体现了地域性,首尔与京畿道叫做山台戏,黄海道叫做假面戏.在庆尚道地区,洛东江以东叫做野游,洛东江以西叫做五广大;庆尚北道有河回别神祭假面戏;江原道有官奴假面剧.另外,咸庆道又称之为北清狮子舞.这些假面剧大多反映了朝鲜末期的社会现实.可以说真实地再现了朝鲜末期混乱的阶级结构和封建制度的没落.让我们来看一下东莱野游中的两班院子戏.

“抓起两只手腕,直奔房里去,铺炕纸、海螺屋顶、唐油纸踢脚线,用蓝色稜花涂抹、用白色稜花带子绕”等等

先进行这样冗长的罗列,之后是,

“先喝一杯酒,两杯酒,连续喝三杯,酒在兴头上,风光秀丽的山水屏风和景色怡人的山水屏风摆在左右两旁头枕鸳鸯枕,身盖翡翠被,大夫人正当韶华,木桩也正值青春.正值青春年华的身体合二为一,正是春宵一夜值千金.”

正在这时,两班突然叫喊起来“完了,完了”,貌似发生了什么事情.

上面的台词是东莱野游两班院子戏的部分内容.正如大家看到的,木桩正在用巧妙的计策戏弄他的两班主人,通过语言游戏讲述他与两班夫人通奸的内容.在阶级至上,且强调女性贞操的朝鲜社会中,奴仆与两班夫人的通奸事实上是绝对不可能发生的事情.但在假面剧里面,通过有意识地表现上流社会的骄奢淫逸,来最大化凸显戏剧冲突和喜剧效果.特别是民众通过侮辱统治阶层的两班贵族来消解他们对现实的不满.并且,使民众更感兴趣的,是通过非行为的语言游戏巧妙地戏弄两班贵族.

此外,在统营的五广大讽刺戏院子戏和固城五广大的院子戏中,还有通过体现身份不明的父母的滥交来讽刺两班的淫乱形象.五广大是洛东江以西地区的假面戏.统营五广大共分为五个戏码,即麻风病人假面戏、讽刺假面戏、营奴假面戏、脓疮假面戏和捕手假面戏等.其中讽刺假面戏包含了对两班嘲讽的内容.

我们来看一下统营五广大讽刺假面戏的片断.

木桩说道:“嘘-.天儿越来越热了,两班混蛋都像蛇聚在池塘一样,像狗聚在巷子一样聚在一起.管他马桩、牛桩还是狗桩,管他是春三月长安家里心急如焚,还是考场上找干爹,就那么‘木桩!木桩!’地

叫着。”

以这种方式来讽刺两班.

因此两班说：“嘘-.这该死的！奴才竟敢辱骂两班，是想找死吗！”

木桩笑道：“哈哈！你吹嘘自己是两班，让我来看看你两班的真面目。”于是开始说第一个两班.

说到第三个两班时：“第三个两班来说说你，一个娘两个爹.一边是南阳洪家，一边是水源白家，你说你有什么颜面自诩两班.”

两班怒道：“哎呀！哎呀！”.

又说“第七个两班说说你吧，你娘是菩萨！菩萨嫁人生了你，你有什么颜面自诩两班！你们这些坏东西！”

这里的菩萨暗讽了佛教的僧侣.是在讽刺僧侣行的人.

之后两班怒道：“你这斯竟敢诋毁两班声誉！我倒是想听听你的根本.”说完，木桩道：“可以.”

“我的根本道给你听，可听好了！四代祖、五代祖、六代祖、七代祖、八代祖以上，包括我祖父都是官居一品.”

也就是说祖宗八代都是做官的.

“少年及第之后做了南兵使，五营门队长，你看我这根本如何？”等等罗列了一系列丰功伟绩，这里的‘根本’就是自己祖先的来历.

之后“受命成为平壤监查，二十四色结束后，卷起红角宫、黄角宫”等壮举，以此种方式进行炫耀.

在这里两班出身表现为非常低贱或是还不如普通平民的存在.而且就算木桩戏弄两班,两班却没有察觉,并落入了木桩的语言陷阱之中.通过这种方式,民众认清了作为朝鲜统治者的两班,并感到非常痛快.这种强烈的讽刺同样体现在五广大的表演当中.固城五广大的假面戏是由麻风病人假面戏、五广大假面戏、僧舞假面戏、狒狒假面戏、济密州假面组成.

简单看一下,“两班家伙像狗崽子一样聚在一起,像莲池边的蛇一样聚在一起,像水里的青鲇鱼一样聚在一起”

同样是一连串的贬低性的描述.这种描写同样体现了下人对两班的藐视,用两班为妓女之子的说法,暗讽了两班的淫乱生活.可以看出,在假面剧中,与性相关的话题是批判两班的主要内容.通过贬低两班低贱的出身,来削弱他们的权威.这当然是对两班敌意的一种隐喻式的表达,这种在现实中无法消解的情绪通过假面剧的形式得到释放.

可以通过图片看到东莱野游中的木桩与两班,还有四两班和元两班的模样.这是老妇撞破两班和小妾寻欢作乐的场面.固城的五广大的戏码中有和尚近女色的场景,这是违反佛教清规戒律的行为.因此既有讽刺两班的假面戏,也有讽刺僧侣的.这是对随着高丽朝佛教文化的衰落而颓败的佛教的讽刺.并且由于儒家思想在朝鲜时期得到推崇,这种佛教文化衰败的颓废形象在传统曲目中得到体现.

固城的五广大里还有狒狒戏,就是这里看到的这个人物被称为狒狒.这个形象看起来有点可怕,又高又黑.他的作用是把所有坏两班抓住吃掉,夸张地体现了民众对于两班的憎恶和敌对心理.在固城五广大的老妇戏中,有抬棺材的戏码.这是老妇撞破两班奸情之后惨遭杀身之祸的场景.在照片中人们抬着的老妇棺材出丧的情景,在现实中的农村也能经常见到.大家可以通过学习活动仔细了解松坡山台戏,其被指定为韩国第49号非文化遗产,内容也十分有趣.

### 第三节课 | 盘索里的历史和流派

接下来,我们来看关于盘索里的内容.前面我们了解了盘索里的一些音乐性的内容.这一讲,将会介绍其历史和特点,以及盘索里5部戏曲的主要内容和主题.关于盘索里的历史起源一直存在争议,目前有巫歌起源说、六子戏土理说、游戏起源说和广大起源说等推测.有一种说法认为,盘索里起源于全罗道的巫歌,这也是目前为止最有说服力的推测.特别是综合盘索里的音乐性与文化性,都与全罗道的巫俗极其相似.另外初期的职业歌客基本上都是巫师出身的.许多巫师也来自全罗道地区.因此,我们也推测盘索里的起源地就是全罗道地区.创建盘索里的主导势力应该是分布在汉江以南的乡乐圈,特别是在全罗道地区活动的巫覡们.即使在今天,依然可以看到在乡乐圈里的老戏骨们演唱叙事巫歌的演出形式,其曲调和音阶与盘索里极为相似.

另外,也有从花郎制度中寻找盘索里起源的.这部分我在前面也稍有提及.在花郎制度转变为科举制的过程中,一些精通艺能的花郎便组织了男寺党戏班,在全国流浪演出,而‘广大’这个词也是花郎的方言,因此产生了盘索里是源于新罗花郎的说法.学者们普遍认为,从历史的角度来看,17世纪经历了壬辰倭乱和丙子胡乱这一段混乱与动荡的时期之后,民众在克服快速变化的现实所带来的不满与需求的过程中,一种新的民族艺术形式,盘索里诞生了.盘索里最初是为了响应普通民众的诉求而产生的,后来才发展成为一种独立的艺术流派.因此她在18世纪早期到中期才缓慢地起步.但在那以后,逐渐获得了两班的关注和喜爱,因此才对其做了许多符合两班喜好的改编.两班在对台词的润色和改写上注入了极大的心力.19世纪后期高昌申在孝收集了广泛传唱的曲目,把其中的十二台剧重新汇总为六台传承下来,后期由他的弟子们又培养了许多著名的盘索里名唱.

盘索里也有流派.其实是对音乐的主要特征进行分类的.首先东便制特点是以痛声和羽调为主调.并且声音洪亮充满力量,发声时慎重而结尾时利落清爽.声音不经常黏连,延展性强,也没有以界面调节节奏装点.在盘索里的五台戏中,最适合东便制唱法的是以战争题材为主的《赤壁歌》.

另外还有西便制.西便制与东便制是盘索里流派中的双壁,相对于豁达豪迈的东便制,西便制则具有柔美凄切的感觉.唱词在收尾时并不是利落干脆的结束,而是给人一种拖拽绵延的感觉,并加入界面调使曲调细腻婉转.因此西便制的这种唱法非常适合于演唱《沈青歌》.

中高制是京畿道南部地区与忠清道地区传承的声音,中高制的唱法是介于东便制与西便制的中间,其特征与东便制更相似.其在演唱时使用很多半音阶,音高逐渐上升,在尾声时则像东便制一样成为高音.适合用中高制演唱的作品很特别,像《水宫歌》就是其例.

另外还有江山制.江山制的特征是减弱了西便制的悲切感,尽可能地演绎一种高雅稳重的风格.这也许是受到了儒家的影响.这是因为其在内容上删掉了许多违背三纲五常的段落,因此才有这样的推断.用江山制演唱的代表作也是《沈青歌》.盘索里在传承的过程中,根据音色的特点形成了不同的流派,这个就被称为‘制’.大家可以理解为,前面介绍的流派都可以统称为‘制’,这是用来区分盘索里丰富音色的概念.

## 第四节课 | 盘索里的五台戏与民俗艺术的现代化

下面我们来看一下盘索里的内容.就以“盘索里的五台戏与民俗艺术的现代化”这个主题来进行学习.首先来看一下《春香歌》.

大家看到的是古典小说《春香传》.这是以《春香歌》改编的盘索里小说.这个小说的封面上署名就是《春香传》.这张图片是《春香歌》唱剧中的场面,右边的是李梦龙公子,他在科举中及第之后就带着这样的帽子.因此荣归故里与春香重逢.《春香歌》讲述了南原退妓月梅的女儿成春香与南原副使的儿子李梦龙在私定终身之后经历了生离死别,在此过程中,成春香因为对新任县尉守厅的要求宁死不从而下狱,与此同时,在科举中及第的李梦龙成为暗行御史,前来相救成春香盘索里就演绎了这样一个故事.虽然表面上表达了男女至诚的爱情,但实际上有许多揭露当时统治者的残暴腐朽的内容.因此作为一部暗示正义不死主题的盘索里作品,具有很高的艺术性.

根据《春香歌》的故事梗概与音乐组成可以分为以下六个部分.第一,梦龙与春香在广寒楼初见的桥段.第二,梦龙的千字歌到二人合唱爱歌的桥段.第三,离别和梦龙赴汉阳赶考的桥段.第四,新官上任宴上,春香唱狱中歌的桥段.第五,梦龙科举及第后来到南原,与狱中春香重逢的桥段.第六,卞县令举办生日宴到最后的尾声.一共就是由这六个部分组成的.

这张照片是《沈青歌》的表演,可以看到舞台上有一个鼓手和一名女性演唱者.这就是由两个人组成的典型的盘索里演出的现场.演唱者边作动作边演唱,而鼓手则负责应和演唱者的节奏,包括快节奏、助兴或是调整节奏,具有重要的作用.《沈青歌》讲了一个叫沈青的女孩子,为了让有眼疾的父亲能够重见天日,把自己卖了换了三百石米,又被卖给船夫之后投身大海.后来她在玉皇大帝的帮助下复活之后成为了皇后,最终治好了父亲的病的故事.《沈青歌》虽然以子女对父母至诚的孝道为主题,但其内涵也基于佛教的因果报应.在这个过程中,沈青投河自尽,又被玉皇大帝救赎等不断往返于现实与超现实的世界.强调了现实与超现实世界的相关性.可以说为在现实生活中受苦受难的民众带来生活上的希望,并寻找生活的意义与价值的作品就是《沈清歌》的主题.

《沈青歌》的故事梗概大体上由五个部分组成.第一,沈青出生到母亲去世的桥段.第二,申奉士带着沈青乞讨到为治病向蒙恩寺化主僧贡献三百石供养米的桥段.第三,沈青在后院祈祷的场面到投身印塘水为止的桥段.第四,沈青进入龙宫开始到成为皇后因见不到父亲而叹息的桥段.第五,申奉士为参加盲人宴席进入皇城到重见光明的结局.共分为这样五个部分.

这张照片展示的是表演《兴夫歌》的一位演唱者和一位着装的鼓手在以屏风为背景的舞台上表演的场景.鼓手基本上都是男性.而演唱者既有女性也有男性.另外盘索里的五台戏,有以男性演唱者为主的,也有以女性演唱者为主的.原则上是没有区别的.鼓手基本上都是男性.女性演唱者可以坐着,也可以站着,并根据自身情感开合摇晃手中的扇子.盘索里就是以这种简单的表演形式,承载着音乐与情感,并带给观众喜怒哀乐的既朴素又复杂的综合性艺术体.

《兴夫歌》也叫“朴打令”.讲的是善良的弟弟兴夫被坏哥哥舜夫撵出家门,之后救了一只折断腿的燕子.第二年燕子带来了报恩的种子,种子结果之后从果实中冒出许多宝物,使兴夫成为了富翁.哥哥嫉妒弟弟的运气,便照葫芦画瓢,折断燕子的腿之后也得到了种子.但从这个种子结出的果实中出来的却不是宝物,而是债主、流氓和商人向他讨债,最后甚至冒出了污秽.于是哥哥最终认识到自己的错误,改邪归正的内容.因此可以看出《兴夫歌》宣扬的是三纲五常中长幼有序,尊敬长者的道理.但最终还是升华了兄弟友爱的主旨.但现实中却并非如此.然而在这个故事中,燕子与人,动物与人的关系,以及虚构世界的设定,其实反映的还是因果报应的佛教伦理观.另外还强调了劝善惩恶的传统伦理意识.

这是《水宫歌》.《水宫歌》的鼓手有时候是女性,我特意找到了一张女鼓手的照片.

这是《水宫歌》中的一个场面.这个场面在五台戏中都差不多.就是单纯的由一鼓手一唱者组成的.但有时候在只表演一段的时候,也会有演唱者独自表演的情况.盘索里《水宫歌》的内容为病危的龙王急需兔子的肝作药引,因此鳖自告奋勇要去取兔肝.但是兔子来到龙宫之后,欺骗了龙王,又重新逃回陆地的故事.这个作品虽然以儒家强调的“忠”和三纲五常中的“君臣有义”为主题,但实际上却讽刺了现实当中的各种欺瞒和趋利避害的世道.

《赤壁歌》是以中国的魏蜀吴鼎力的三国时期为背景,从曹操、刘备、孙权争权夺势,号令天下的中国演义小说《三国志演义》中,截取了赤壁大战的部分,并在此基础上创作而成的.盘索里《赤壁歌》并没有完全按照赤壁大战的内容编写,而是以此为中心增减内容.因此与小说《三国志演义》中的内容或文体有很大差异.当时的王或贵族们尤其喜欢《赤壁歌》表现出来的威风凛凛的号令和有节奏感的台词.因此名唱们都争先恐后地演唱《赤壁歌》.以战争为主的题材表现的是将军们的义气与气概.但在现实中想要实现这种气魄要度过许多难关,也揭示了两班社会中存在的许多问题.两班们虽然非常喜爱演绎战争的《赤壁歌》,但从民众的角度来看,这也是一部吐露人民苦难生活的作品,因此在民间也非常受欢迎.

关于盘索里作品的内容介绍就到这里.之前也说过这一讲会继续介绍民俗艺术的现代化,与假面戏和盘索里的现代化内容.前面也讲过南北韩是如何传承和改变传统民俗游戏的.也学习了民俗游戏本有的大同精神在北韩被作为维护共产党权利的道具,进而导致了大同精神的歪曲和变质.与此相对的是,南韩为西方文明敞开大门,并在此过程中升华了大同精神.我们接着讲解假面戏与盘索里的现代化发展.我们先简单概括一下与传统院子戏、院子游戏,唱剧等相关的融合音乐,编舞以及同系列的艺术,这些艺术正在以多种多样的形式发展着,我们来看一些具有代表性的.

唱剧广义上指的是分角色演唱的写实剧种.与盘索里的一人鼓一人唱的这种单人剧不同的是,唱剧中的人物由多人扮演不同的角色进行演唱,所以人物繁多,台词与表演,舞美等都非常写实.可以说唱剧放大了盘索里的戏剧特征,与西方的音乐剧更相似,是增加了试听效果的综合性舞台艺术.因此,它与歌剧或轻歌剧相似,是融合了音乐、戏剧、舞蹈、服装与娱乐等的综合艺术.但其唱法与西方不同,还是具有盘索里的特点.正如歌剧和轻歌剧发源于古代希腊和英国,又融合了中世纪农村的庆典与新悲剧的要素,并接受了文艺复兴时期欧洲与各个国家的宫廷戏一样,唱剧也经历了历史的沉淀,并由多种元素结合而形成的.换句话说,作为唱剧的母体和原始形态的盘索里,也是起源于早期的巫俗仪式,并不断吸收民谣、佛歌、杂歌、民间传说,甚至两班歌辞之后形成的.之后再吸收了西方的元素,最终成为唱剧的艺术形式.在某种程度上,这是一个多元文化相互融合汇通,并保留了独创性的代表性例子.

这张照片中展示的是《春香传》的内容,是李梦龙与春香在春香母亲月梅面前第一次相见的场面.

下面来看院子戏.院子戏是韩国近现代戏剧文化对殖民主义与纯粹主义艺术观的一种反思,强烈反映了戏剧运动的性质.可以说,这是韩国现代戏剧史上唯一一种在韩国自然形成的戏剧风格.因此院子戏在世界上也是独一无二的.即,不需要任何的舞台和戏剧元素,只要有场地,那么演员们就可以任意出入进行表演.因此可以说戏剧是观众表达自我的方式和对共同社会的感知,并通过二者的结合,强化了观众的集体意识和认知.院子戏中最具代表性的是院子游戏,可以看到观众们围坐在表演场地边,欣赏演员们自由的表演.因为场地是没有界线的,因此演员可以来到观众中间,观众也可以参与到表演中去.这种界线模糊的现象就是院子戏的特征.

下面介绍“兴兴乐团”.这个名称对于大家来说可能有些生疏,这是一个基于韩国传统艺术的融合国乐乐团.从其团长张荣奎的介绍可以得知,其音乐都是基于韩国民谣,尤其是京畿民谣、西道民谣或巫俗音乐等韩国传统音乐进行创作的.主唱李熙文在2014年的(KBS)国乐大赏中获得民谣奖,也是第57号非物质文化遗产.他们通过“兴兴乐团”具有冲击力的表演,在国际上打响了名声.NPR也曾称其为“2017年最棒的发现之一”.《纽约时报》评论“来自韩国的‘兴兴’从韩国民间传统中创造了他们的音乐与演唱风格,用一个不恰当的比喻来说,它变成了有趣的华丽摇滚、迪斯科或迷幻艺术.”这个“兴兴乐团”与摇滚乐队一

样,把非主流风格和舞台礼仪与传统演唱结合,使之成为一种融合了传统艺术与摇滚艺术的新艺术形式.可以说,它向我们展示了一种独特的艺术面貌.大家可以通过视频欣赏.

可能会觉得非常有趣.歌手李熙文有一段关于融合性的非常特别的解释,他说:“在韩国的传统艺术中,有男巫,男巫具有男性的性别特征,但作为一种媒介,他需要另外一种性别身份.”也就是需要女性的存在.“因为他们需要传达的不仅是男性的灵魂,还有女性的.”李熙文本人在演出时,为了扮演女性角色,会故意忘记自己是男性的事实,他表示,自己会尽最大的努力去扮演一个中性的角色,这句话恰好证明了他所说的融合与合一的宗旨.

我们再来看一下李捺致乐团.这个乐团实现了盘索里与现代流行音乐的完美结合,直到现在也非常受欢迎.乐团名称“李捺致”是借用了朝鲜朝后期八大名唱之一李捺致的名字.乐团组成和音乐风格与2017年的兴兴乐团的发展很相似,其成员也有重合.同样的,这些音乐人除了国乐之外,对融合音乐也非常感兴趣.他们组成了一个说唱乐队.把最前沿的流行音乐与传统的民俗、盘索里完美结合,实现了古典音乐与现代的音乐的碰撞,并为观众带来精彩的表演.大家通过后续的学习活动可以进一步了解这些内容.

## 第五节课 | 民俗的现代化与大同思想，讲座总整理

接下来总结一下民俗游戏的现代化与大同思想.我们了解了在民间传承和发展的民俗游戏中具有代表性的假面戏与盘索里.这两种艺术形式的特别之处就在于其一直以一种纯粹的民众艺术得到传承和发展,因此对我们的启示也非常大.另外还有一点就是南北韩对于民族艺术的不同反应.前面讲过,假面戏与盘索里都发源于农村和巫俗.并且体现了融合与大同精神的特点.这里我们再次简要总结一下巫俗的核心原理.巫俗的核心思想首先是在生活中懂得感恩.这是巫俗法事开始的环节,同时也是巫俗的核心精神.由于不懂得感恩,放纵的人们变得贪婪愚蠢,在他们犯错之后,就需要纠正,这种纠错机制就是巫俗.而巫俗的特征就是需要借助神的力量.因此这也体现了一种大同精神.而在我们最初学习的创世神话和檀君神话的世界观中,这种阳界与阴界共存的形态即是一种大同精神的体现.

在巫俗中没有单独的经文和教义.是以对自我的深入反思为前提的.也就是人类用实际行动来表达对生活的感恩和报答.具体方式是通过对自身内心的省察来实现的.非常简单.

假面戏和盘索里就是基于巫俗的这种精神的.实际上这两种艺术形式都表达了无论是两班贵族还是下层平民,都应该舍弃贪欲和愚蠢的念头,去过一种顺其自然的生活这样一个主题.这就印证了其中的大同精神.如果具体分析作品,就会得出更加确切的结论.自从哲学和宗教出现以来,巫俗就被当做一种迷信,并衰落成为一种低等的信仰形式.一般来说,人们对于萨满教的看法是负面的.这从巫俗现场就能体会的到.这有可能是对其长时间的忽视以及恶劣的环境导致的.但近代的韩国已经开始重视这个问题.即,我们如何才能更好地复原巫俗的原型这个问题.换句话说,她与创世神话、建国神话和以后的民间信仰与萨满都有着极为密切的联系.前面提到,巫俗的哲学核心就是顺其自然.能否恢复这种主旨是韩国进入近代之后急需解决的问题.近代的朝鲜人民就提出了,能否挽救其本来主旨的问题.另一方面,在这个过程中民俗文化得到持续发展,代表性例子就是前面看到的假面戏与盘索里.

另外还有新宗教的出现.这些新宗教的出现都基于创世神话、建国神话和巫俗思想.这些在前面第八周的时候有讲到.但是在此过程中也暴露出思想性的混乱与过渡期不成熟的问题.在这种困难的情况下,新宗教结束时出现的元佛教圆满地克服了各种问题而成为主导思想.可以说是苦尽甘来的结果.

元佛教于1909年由朴中斌创立.此宗教的教义认为,在生活中要懂得感恩,并通过报恩行来报答生活,才是人生的要旨.换句话说,其从另一个侧面体现了大同精神、共存、共荣与共生的思想.为此,有必要进行适当的修行,即戒、定、慧三学修行.即不分散精力,让注意力集中到一个点上.这也与巫俗中直面自我内心的本质性前提一致.不同之处在于,需要在更加复杂的社会环境中接受更艰苦的训练.巫俗为了在恶劣的环境中生存,以一种专业化的方式发展至今.他们在直面内心时,需要借助神官的力量与神沟通,最终获得神音.就元佛教而言,他们的修炼方式更加普遍化和一般化,是通过戒、定、慧的三学修行教义来代替巫俗的方法.总之,日本殖民时期的朝鲜与近代,是处于对殖民者的反感,促使大量民众产生了思想上的集结的时期.举一个典型例子来说明那时的社会氛围与面貌.那就是三一运动.其次是独立宣言文,我们可以从独立宣言文当中找到前面所说的思想上的集结,同时也作为本节课的总结和结论.

大家在学习活动里面阅读了独立宣言文.可能内容会有点难度,但是多读几遍之后,应该能够理解其中所表达的含义.这个宣言当中涵盖了许多内容.从整体上看,它是在思想基础上先解决过去的矛盾,再解决现实问题的顺序撰写的.宣言文的语气十分坚毅,并充满自信,表现出某种先验的信念.它还预见世界历史的潮流,并从宏观的角度主张地球共同体的观点.从整体上看,可以简单解释为是神人合一思想和大同精神的体现.我们来看其中的一句.

“我们在此宣布，我们大韩民国是一个独立的国家，朝鲜人民是一个独立的民族。我们明确地向世界宣告人类平等的伟大道义，据此后迪后世子孙，民族永远享有自主生存的正当权利。”

省略后文.

“我们成为作为旧时代遗物的侵略主义与强权主义的牺牲品，在数千年的历史中第一次遭受了另一个民族的压迫，这种刻骨铭心的痛苦已持续10年之久，期间我们被剥夺了多少生存的权利；受到多少精神发展的阻碍；损害了多少民族的尊严与名誉；又失去了多少以新锐的力量和创造力为世界文明做出贡献的机会？”

省略后文. “我们并不是为了斥责日本忽视我国悠久的社会传统与优秀民族性的轻率行为。我们忙着鞭策自身，激励自身的发展，无暇去埋怨别人。我们忙着收拾残局，治愈伤痛，而无暇去惩罚和掩盖过往的错误。今天落在我们身上的任务，只有自我建设，并且永远不要因为过往的怨恨和一时的冲动去驱赶别人。啊啊，新的世界就在眼前。强权的时代一去不返，道义的时代已经到来。过去一个世纪内的磨练、成长与培育起来的人道主义精神，已经开始将新的文明之光照进人类历史。我们会站起来。良心与我们同在，真理与我们同在。无论男女老少，都从黑暗闷热的庇护所中欢快地站起来，与大千世界一起实现喜悦的复活吧。我们祖先的神灵在看不见的地方帮助我们，全世界的新形势在外保护着我们，开端即是成功。”

可以看到这其中提到了良心与真理，与祖先的神灵和世界的新形势。这些都强烈地体现了一个由内而外，个人与共同体，追随世界平等道义的正当独立的民族。他们没有怨恨迫害朝鲜的日本，而是以一种教育的语气，教会他们行大义。并且在埋怨他们的蛮横之前，先专注于自身未来的发展。宣言中充满了神人合一的良知与对真理的信心，同时也表面这是无法阻挡的世界史的洪流。而且我们今天看到的世界的确也正朝着这个方向发展着。与约百年前相比，的确发生了显著的变化。总之，他们接受了由历史的错误和曲折带来的苦难和命运，但从现在开始要纠正它们了。表达了依据真理使生活恢复正常，并且为实践正确的大同精神而共同努力的强烈意愿。下面是当时作为先锋与指导者的白凡金九先生的思想，通过这段文字可以更好地理解宣言文的内容。

金九先生有一篇与现代韩国文化相关的，阐述文化强国思想的文字我们通过了解这段文字，进一步深入理解宣言文的背景。这篇文字是以“我们深刻纪念梦想文化强国的白凡金九先生”为题目的，这也是发表在2022年1月19日《今日首尔文化》上的采访总统候选人报道的标题。这篇文章这样说道：

“参加过独立运动的金九先生的名字，经常出现在文化艺术领域中，这是因为他在《白凡日志》中说过：‘我想要无限拥有的是文化的力量’，‘我希望我国能拥有强大的文化力量’。最近我国的文化产业是强势。包揽了各项大奖的奉俊昊的《寄生虫》，占据Billboard单曲榜单首位的BTS的《黄油》，收获世界许多国家收视率第一的Netflix投资的《鱿鱼游戏》等等都是证明。我突然产生了这样的想法，‘如果白凡金九先生还在世，看到我国文化产业的盛行，在艺体能领域上闻名世界的明星时，他会怎么想？’他一定会为在奥斯卡颁奖典礼上发表获奖感言的奉俊昊而倍感欣慰和骄傲；如果他看到孙兴慜在英超联赛中托特纳姆

热刺队对阵伯恩利比赛上的梦幻进球，可能会兴奋地大喊并反复观看这段内容。但当看到我国文化产业市场的增长和在艺体能领域展露头角之后，他的心里会认为‘我的愿望’已经实现了吗？白凡金九先生所说的文化和今天我们理解的文化有着不同的含义。在他的《白凡日志》中传达的文化含义是‘仁义，慈悲和爱’。这是一颗无穷给予的心。他说‘希望我国能有强大的文化力量’，这里的文化力量指的不是电影、音乐、韩剧、TV综艺等的文化输出。而是‘让我们自身感到幸福，并给别人带来幸福’。他希望的是，我们能成为世界高新文化的源泉，成为世界的榜样。”

这是最近发表在一本艺术杂志上的文章。与文化相关，也是关于临近第20届总统选举的内容，因此是一篇极具后发性和生动感的文章。文中提及的内容主要是我们熟知的韩流。但同时也强调文化强国的根本精神决不能仅停留于韩流的成功。金九与当时的独立运动家们认为，真正的文化强国，并不在于获得的成就，是在于爱的实践。这其中蕴含了一种终极的文化力量。

这或许是对已经在世界展露头角的韩流文化，能朝着金九先生所说的方向发展寄予希望的一篇文章。可以说，三一运动独立宣言文从那时起，就已经具备了实践终极文化的力量，并从真正意义上实现了文化强国。即确认自己得到的恩惠，并过着感恩的生活，这就足够了。这可能就是孔子主张的仁义，佛教中布施的慈悲，和耶稣给予的大爱。这其中不可能有过度扭曲的欲望。

在遵守自己本分的同时，适当的实践并非难事。这里才能找到人类救赎的希望和未来。金九的这种精神完整地融入三一运动的精神当中。即不会陷入对迫害自己的日本帝国主义的仇恨中，而是把精力集中于建立大同社会和对此的实践上。我认为这才是真正的大同精神以及无限的慈悲、大爱和仁义。当时的世界史发展趋势是以民族自主性为主的。他为人类的文明史预言了一条新的希望之路。告诉我们要忘记旧时代的武力、执拗与压迫。可以说非常准确地预言了新世界的到来。把民族共同体的未来发展之路放到一个高层次的文化实践中，并呼吁我们一起为之向前迈进的，不仅是金九先生的遗志，同时也包括今天在这个土地上发生的和‘K-’韩流有关的一切，都与三一运动时期的文化概念完全一致。同时这种无条件的大爱与慈悲并非易事，也不可取。我们首先要理解这段历史。

这在知识与智能发达的今天，想要实现并非难事。事实证明，我们生活在宇宙和社会赐予的无限恩惠当中。承认这点的态度非常重要。只有这样才能懂得感恩，并且专注于维持本分的生活。为此，我们需要相互勉励，相互认可。美好的文明世界应该就是这样的。对此持有开放的态度才能成为真正的文化强国，才符合21世纪的文化潮流趋势。只有这样，平凡而朴实的每个人才能拥有高水平的文化力量。并且成为现代社会中真正的英雄。

下面简要地总结一下迄今为止学习的内容。第一周我们学习了创世神话。通过了解韩国的创世神话，我们学习了神话的叙事，并且深入了解了其内在的思想性原理。对自然融合、天地合一、神人合一的核心要素进行了讲解。

第二周，我们学习了建国神话。我们学习了具有代表性的建国神话，也了解了其他的神话故事。并一起探讨了神话内在的历史性元素与文化史元素。因为这与韩国的开天节有密切关联。因此我们无法忽略历史性的问题。在这个过程中，神人合一的思想发展成为具体的阴阳五行思想和三教思想。

第三周我们讲了‘萨满教1’。萨满教的历史由来已久。韩国的巫俗就是其延伸部分。因此，为了正确理解韩国的萨满教，就必须先了解人类文明史中的萨满历史与哲学。我认为这是一个了解人类历史趣事的好机会。同时也期待通过这样的学习可以化解对萨满教的偏见。

第四周在‘萨满教2’中详细介绍了韩国的巫俗。韩国的巫俗历史悠久，并一直保持了原型的面貌。其影响力至今依然非常大。韩国也是一个拥有世界上最好的巫俗组织与巫师数量最多的国家。接下来为大家介绍这种文化在韩国根深蒂固的原因，以及其思想性依据。可以确定，韩国的萨满教建立在神人合一与阴阳五行的基础上，并以人类共同生活的自然共存为中心思想。

在第五周的讲座上,我们讲了民间信仰和家庭信仰.民间信仰也称为自然信仰.这也意味着它的原型性.家庭信仰则仰赖民间的文化风俗,至今依旧具有活力.这种信仰形态与韩国的巫俗有深刻的关联.我们还具体了解了家庭信仰的形态以及其思想性.

第六周我们重点学习了民间信仰中的村落信仰.村落信仰是至今依然在韩国大多数村落中存在的一种仪式.这种文化元素也与前面的巫俗与家庭信仰密不可分.它既与巫俗有关,同时也受到儒家的深刻影响.村落信仰体现了共同生存的大同社会自然且顺理成章的真理,可以肯定,这是一种用身体来实践的文化传统.

第七周的讲座中,我们了解了原始社会,古代社会和民间的面貌,之后学习了从三国和渤海时期到高丽时期的情况;第八周则讲了朝鲜时期的社会面貌.高丽朝的佛教与八观会、莲灯会证明了高丽朝佛教的蓬勃发展.我们学习了具有代表性的文化形式,八观会和莲灯会.我们还详细了解了被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为世界文化遗产的莲灯会的普遍意义.此外,韩国的佛教与其他国家不同,具有其独特的面貌,其中当然少不了巫俗的影响.佛教与传统思想的结合形成了韩国独特的佛教文化,并成为文化原型成功运作的典范.可以肯定,这是一个进一步巩固神人合一与大同思想的过程.

在第八周的讲座中,我们看了儒教和宗庙祭祀乐与山台戏的内容.到了朝鲜时期,佛教得到压制,儒家思想受到推崇.我们探索了立足于儒家思想的代表活动宗庙祭祀乐的内在和外在的文化元素与其运作方式.朝鲜是一个有着严格哲学理念的国家.我们分析了由此产生的优势与劣势在哪里.除了这些受儒家思想影响的文化之外,还介绍了以民众为中心的山台戏.韩国今天传承下来的大部分的民俗文化都与此相矣.

第九周我们学习了民俗游戏与民俗艺术.高丽朝的八观戏,莲灯会与由朝鲜朝的山台戏变化而来的歌舞百戏,在朝鲜后期的困境中幸存下来,并一直传承到今天.我为大家介绍了具有代表性的作品.并分析了其中蕴含的大同精神.另外,还详细为大家讲解了在韩国现代南北韩分裂之后,各自对待民俗文化的异同态度.另外,还提到了韩国民间传统的现代化发展形式.

在第十周中,我们学习了假面戏和盘索里与现代文化的内容.并介绍了近代民众艺术中具有代表性的假面戏和盘索里的具体内容.假面戏在全国范围内的普及和盘索里的盛行,体现了民众的集体意识,同时也佐证了合一才是实现大同社会的真理.我们也看到了这种文化实体与其精神是如何在现代社会中传承和变化的.同时也目睹了‘K-’韩流所带来的影响.韩国的近代实际上是由许多令人窒息的时期组成的.西方列强的侵略和36年期间的被殖民历史,数次的独立运动,韩国战争和惨绝人寰的杀戮,还有因世界冷战局势和列强导致的分裂,之后南韩出现的独裁政府以及由此产生的民主化运动等,不得不让人感叹这真是一段动荡的近代史.在此过程中,韩国的文化原型做出了何种选择,其具体内容又是什么,我们通过民俗文化的延续,新宗教的出现与思想,还有独立宣言文的内容集中地了解了文化原型的运作机制.另外,还提到了现代的‘K-’韩流持有何种态度.

希望这些讲座能给大家带来愉快并有意义的时光,非常感谢大家收看.另外,我们再来看看“韩国文化原型总结之南北韩问题”.韩国的发展有着世界上独一无二的特点,这一点是有目共睹的.其在经济、政治、文化、思想方面取得的卓越成就和发挥的实力并不是偶然的.此外,还包括以下文化史的特点.韩国是一个在历史上没有侵略史或进行集体杀戮的国家.反而是经常被他国侵略,遭受了无尽的艰辛和苦楚.即便如此,这个民族也用坚强的毅力挺了下来.并且坚守一种善良且公正的生活态度.同时,也保持一种不放弃学习态度的优点.通过树立正确的神人合一思想与大同精神,创造了丰富的文化.

但也存在着缺点.因为没有建立帝国的经历,因此表现得朴实无华,甚至会有些土气.作为一个处于世界边缘的小国,依然缺乏开放性.因此,人与人之间依然充满‘小团体文化’的氛围.如今,随着世界旅游业的发展,这一氛围正在逐渐得到缓解.在适应飞速发展的现代化进程当中,对于各种社会中的不公、不正当以及歪曲现象的迅速遗忘,也是一种缺点.即以短暂的回应代替长期的关注.我们往往会专注于学习别人而产生谦卑的态度.这虽说是一种克服自满的办法,但也容易失去充满活力和健康的文化氛围.

南北韩的对峙依然是民族需要解决的难题.这也是民族选择的问题.我们不能终日叹息这是由于美、

中、俄这些外部势力角逐所导致的.而是要向世界证明,我们有能够自主解决问题的能力.人们普遍认为,韩半岛问题的解决有可能是世界和平时代到来的开始.这是因为克服国与国之间的意识形态冲突,实现世界的共同繁荣,是通过大国间的合作才能实现的事情.因此这不仅仅是韩半岛自己的问题.同时也是我们所有人的问题.因此朝鲜半岛的人民同时也是肩负这种世界性使命的民族.思考如何解决这一艰巨任务是我们当然的责任,但同时也需要世界人民的参与.

乍一看,这些问题看起来像是巨大的挑战.但我却不这么认为.归根结底,这是一个回归正常人性的问题.如果能正确认识到由于自身的无知导致的扭曲贪欲,那么问题很快就能得到解决.我相信,解决问题最根本的方案就在于人们何时能回归人类本来的面貌.这在创世神话与建国神话中提及的神人合一的纲领与民俗文化所展示的大同精神中,已经揭示了答案.我非常自信地认为,这种回归的努力,已经在现代的韩国和世界上积极地开展起来.因此,我认为对韩国文化原型研究的关键应该不仅仅只局限于韩国.

感谢大家收看,辛苦了.